



2023

찾아가는

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

SDGs . ESG 기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2023. 10. 16. 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작발전소 1층, 아니마떼꼬)



| 주 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주 관 |  강원광역자활센터
강원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사업
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한국자활기업협회 강원지부

2023
찾아가는 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

2023. 10. 16. 월
14:00~17:00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작발전소 1층

SDGs . ESG 기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 **신청방법** | 자활정보시스템 내 교육신청 
- 🕒 **신청기간** | 2023. 10. 5. 목 ~ 10. 12. 목
- ✉️ **신청문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 3415. 6933

사 회

진 용 철 _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대표실장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동향과 기업의 ESG 경영사례
강 내 영 _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일본 키노가와시 ESG 행정 사례(고향납세제 운영사례)
니시가와 요이치로 _ 키노가와시청 지역창생과 반장

사례발표

일본 무기노사토 사회복지법인의 SDGs 사업 운영 사례
노나카 야스히로 _ 무기노사토 법인 사무국 차장

경기도 ESG 파트너십 추진사업 사례
김 민 석 _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사업본부장

SDGs 자활사업 추진사례와 확대방안
박 향 희 _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 주 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주 관 |

 강원광역자활센터
Gangwon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강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한국자활기업협회 강원지부



목 차

CONTENTS

1 행사안내

2 사례발표

주 제 1.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동향과 SDGs 경영 “기업경영 중심” ... p_01

주 제 2.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 “키노가와시의 고향납세제 운영 사례” ... p_21
번역참고 ... p_57

주 제 3.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 “무기노사토 사회복지법인의 다각적 사업 운영 사례” ... p_63
번역참고 ... p_74

주 제 4. 기업과 민간의 SDGs, ESG 관련 일자리 개발 “경기도의 ESG 파트너십 추진 사례 중심” ... p_81

주 제 5. SDGs, ESG 연계 자활사업 추진 “다화용기 세척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공모 우수사례 발표” ... p_89

3 질의응답



2023

찾아가는

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



일정표

PROGRAM

시 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13:30~17:00	13:30~14:00 : 사전 접수(자활, 지역사회 및 일본의 SDGs 사례 관람 및 담소 나눔) * 사회 : 진용철(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대표실장)	
	인사말	‘10 · 인사말 - 정 해 식(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 이 경 희(강원광역자활센터 센터장) - 김 경 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지부장) - 임 형 석(한국자활기업협회 강원지부 지부장)
	안내	‘10 · 포럼의 취지 및 일정 안내 등 “SDGs, ESG의 개념과 동향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포럼 취지” (박미라,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발표 1 (일본사례)	‘20 ·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동향과 SDGs 경영사례 “기업경영 중심 (강 내 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휴식 1	‘10 · 휴게시간(아이디어카페)
	발표 2 (일본사례)	‘30 ·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사례 “키노가와시의 고향납세제 운영 사례” (니시가와 요이치로, 키노가와시청 지역창생과 반장)
	발표 3 (일본사례)	‘30 ·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사례 “무기노사토 사회복지법인의 다각적 사업 운영 사례” (노나카 야스히로, 무기노사토 법인 사무국장)
	휴식 2	‘10 · 휴게시간(아이디어카페)
	발표 4 (국내사례)	‘20 · 기업과 민간의 SDGs, ESG 관련 일자리 개발 사례와 이슈 “경기도의 ESG 파트너십 추진 사례 중심” (김 민 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발표 5 (국내사례)	‘20 · SDGs, ESG 연계 자활사업 추진 사례와 향후 발전 방안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공모 우수사례 발표” (박 향 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질의 (‘20)	‘20 · 질의 및 응답
	마무리	‘5 마무리

2023 찾아가는 강원지역 정책포럼 사업계획서

- SDGs · ESG 기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SDGs는 2016~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로서 총 17개의 세부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는 인류보편(빈곤 등) 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고용, 생산소비 등)로 추진되고 있음.
- SDGs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은 공식적으로 SDGs를 “Global Goal”로 칭하며, 세계최대 공동목표로 규정하고 있음.



- SDGs 의 국제사회 독려와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업 경영 평가로서의 ESG는 지난2021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K-ESG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고,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기본 진단 및 평가 항목을 제시하는 등의 활성화 추진

-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ESG 우수기업 포상 및 격려, 수출 중소기업 ESG 지원 협의회 발족,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추진
- 또한, 현재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국내 공시 의무 등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 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서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하는 상황

※ 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매경시사용어사전)

- ‘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기본전략자치 수립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각종 시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SDGs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혁신도시 등에 소재한 11개 공공기관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ESG 지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강원랜드 및 관광·숙박업종 중심 대기업 역시 ESG 경영실적 평가 지표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추세이나, 자활현장의 SDGs·ESG 활성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모델 부족
- 자활현장의 SDGs·ESG 기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SDGs·ESG 협업 기반 마련 필요

□ (추진 목적)

- 일본의 SDGs · ESG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SDGs·ESG 기반 일자리 사업 다각화 모색
 - 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ESG 경영전략 및 파트너십 구축 사례 제시
- ESG 경영시대에 협력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실천 가능한 협력사업 기반 사업 추진 사례 제시
 - 협력사업 기반 : 사업 시 필요한 상호 간 가이드라인 확인 및 제시, 관계 정립, 중간 지원조직 역할 제시
- SDGs 기반 자활사업의 실적과 가치 재조명을 통한 실제적 협업 일자리 모델 제시
- 자활 현장의 SDGs · ESG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자활 일자리의 질적 성장과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에 기여

1. 포럼개요

- 포럼주제 : **SDGs · ESG** 기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 일 시 : 2023년 10월 16일(월), 13:30~17:00 (210분)
- 장 소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작발전소 1층 아니마떼끄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 ※ 케이터링 및 사례관람실 : 아이디어카페 1, 2
- 추진방법 : **SDGs · ESG** 관련 총 5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 방식
 - ※ 일본 사례 발표 → 국내 사례 발표 → 자활 사례 발표
- 참석인원 : 총 100명 (공공기관 관계자 10명, 일본 초청 외빈 20명,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30명, 외부 자활관계자 20명, 자활기업 관계자 20명)
- 공동주관 :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강원광역자활센터,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한국자활기업협회 강원지부

2. 찾아가는 정책포럼 세부 프로그램

일본 교류 국제세미나

시 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13:30~14:00 : 사전 접수(자활, 지역사회 및 일본의 SDGs 사례 관람 및 답소 나눔) * 사회 : 진용철(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대표실장)
13:30~ 17:00	인사말 10	· 인사말 - 정해식(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 이경희(강원광역자활센터 센터장) - 김경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지부장) - 임형석(한국자활기업협회 강원지부 지부장)

안내	'10	· 포럼의 취지 및 일정 안내 등 “SDGs, ESG의 개념과 동향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포럼 취지 설명 (박미라,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발표 1 (일본사례)	'20	·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동향과 SDGs 경영사례 “기업경영 중심” (강내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휴식 1	'10	· 휴게시간(아이디어카페)
발표 2 (일본사례)	'30	·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사례 “키노가와시의 고향납세제 운영 사례” (니시가와 요이치로, 키노가와시청 지역창생과 반장)
발표 3 (일본사례)	'30	·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사례 “무기노사토 사회복지법인의 다각적 사업 운영 사례” (노나카 야스히로, 무기노사토 법인 사무국차장)
휴식 2	'10	· 휴게시간(아이디어카페)
발표 4 (국내사례)	'20	· 기업과 민간의 SDGs, ESG 관련 일자리 개발 사례와 이슈 “경기도의 ESG 파트너십 추진 사례 중심”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발표 5 (국내사례)	'20	· SDGs, ESG 연계 자활사업 추진 사례와 향후 발전 방안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공모 우수사례 발표” (박향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질의 (‘20)	'20	· 질의 및 응답
마무리	'5	마무리



목 차

CONTENTS

사 례 발 표

주 제 1.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동향과 SDGs 경영 “기업경영 중심” ... p_01

주 제 2.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 “키노가와시의 고향납세제 운영 사례” ... p_21
번역참고 ... p_57

주 제 3.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 “무기노사토 사회복지법인의 다각적 사업 운영 사례” ... p_63
번역참고 ... p_74

주 제 4. 기업과 민간의 SDGs, ESG 관련 일자리 개발 “경기도의 ESG 파트너십 추진 사례 중심” ... p_81

주 제 5. SDGs, ESG 연계 자활사업 추진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공모 우수사례 발표” ... p_89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동향과 SDGs 경영 “기업경영 중심”

강 내 영 |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일본의 지속가능경영 정책동향과 기업의 ESG경영 사례



지퍼 강내영



“
일본의
SDGs/ESG
동향
”

일본의 SDGs/ESG

참고.

1.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
일본 후생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금 적립금을 관리·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기관
-기관운영액: 219兆1,736億円, 수익률: 9.49% (2023년1사분기 현재)

2.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년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UN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
-2012년 자문위원회 합의 PRI 강령 채택
-UN PRI는 6개 원칙, 33개 세부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

<외부환경의 변화>

2015년 일본의 SDGs, ESG 원년!

1. SDGs의 채택

*기업도 UN의 목표달성의 역할담당
-학교교육 커리큘럼 도입

2. 파리협정 합의

*실효성 있는 물의 강력한 요구
-탄소중립 제창(스가 수상 2050년 달성)

3. GPIF의 PRI 서명

*일본의 ESG 투자 주목도 UP
-대기업의 ESG 촉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강화

출처: 오사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일본의 SDGs/ESG

ESG 투자와 SDGs의 관계 사회적 과제해결이 사업기회와 투자기회 창출

투자기회 증가

사업기회 증가

ESG投資
GPIF ← 운용회사 → 企業

2015년 9월署名

ESG 추진

리턴

동의

지속가능한 사회

공통가치창조(CSV)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원칙1 우리들은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ESG 이슈를 반영한다.

-원칙2 우리들은 적극적 소유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ESG 이슈를 반영한다.

-원칙3 우리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이슈가 적절히 공개되도록 노력한다.(원칙4~6 생략)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부각

-ESG의 다양한 기업평가 척도 : 재생에너지 활용도, 노동자 고용환경 등
-협력업체(공급업체) 포함한 달성도 판단 (특히, 유럽과 미국 요구 강화)
-실제로 SDGs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소홀 거래중단 사례 발생
-SDGs를 활용한 사회의 게임 체인지 역할

출처: 오사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일본의 SDGs/ESG

*2015년 일본의 SDGs, ESG 원년

*2016년

- SDGs 추진본부 설치 : 전 부처 장관 참여
- SDGs 추진 원탁회의 : 행정, 기업, 지식인,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SDGs 이행 가이드라인 결정
- SDGs 액션플랜

*2017년

- 일본 SDGs 어워드



일본의 SDGs/ESG

사례 : 지방창생 SDGs (내각부)

* 지방창생 목표

- 저출산 고령화 대응
-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극복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방창생 활동방향

-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과 지역 활성화
- SDGs의 이념에 따라 추진 : 정책 전반의 최적화와 지역 과제 해결의 가속화

*SDGs

-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척도) 활용
- 행정, 민간사업자, 시민 등 이해관계자 간 공통 언어 정착
- 정책 목표 이해 증진 : 지자체 업무의 합리적 연계 촉진
- 지방창생의 과제 해결 촉진

일본의 SDGs/ESG

지방창생 SDGs 민관협력 플랫폼

* 설치목적

- SDGs의 국내 이행 촉진
- 지방창생 민관협력의 장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회원 주치의 이벤트
정보의 보급 촉진



회원과의
매칭 서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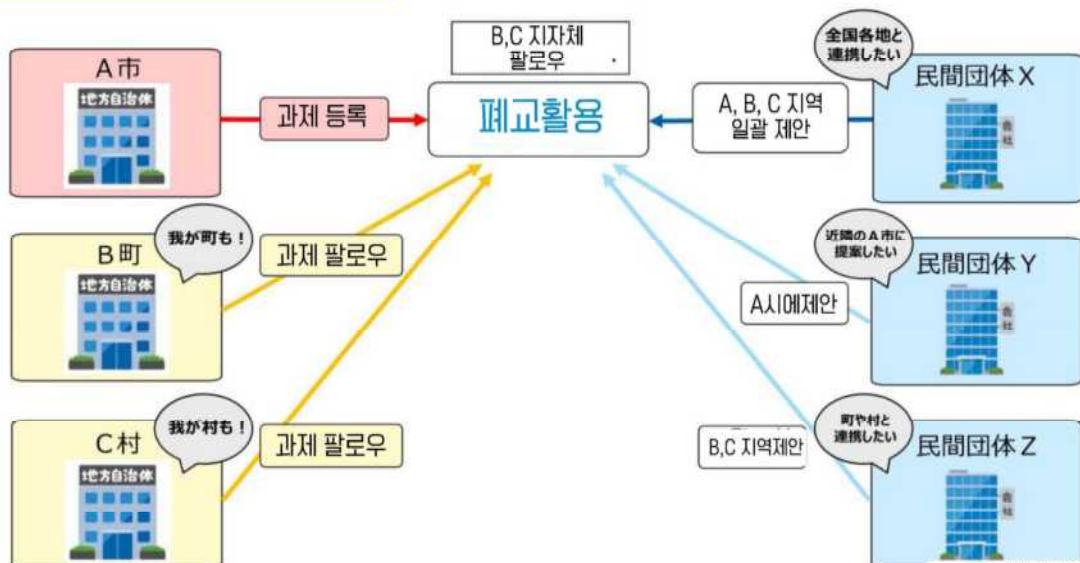


분과회 개최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일본의 SDGs/ESG

- A지역의 과제 확인
- 유사과제 또는 공감 B지역, C지역 팔로우
- A지역의 과제 팔로우 버튼 민간단체 등과 연결
-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도 포함하여 제안 가능
(같은 내용 일괄 제안 또는 제안처 임의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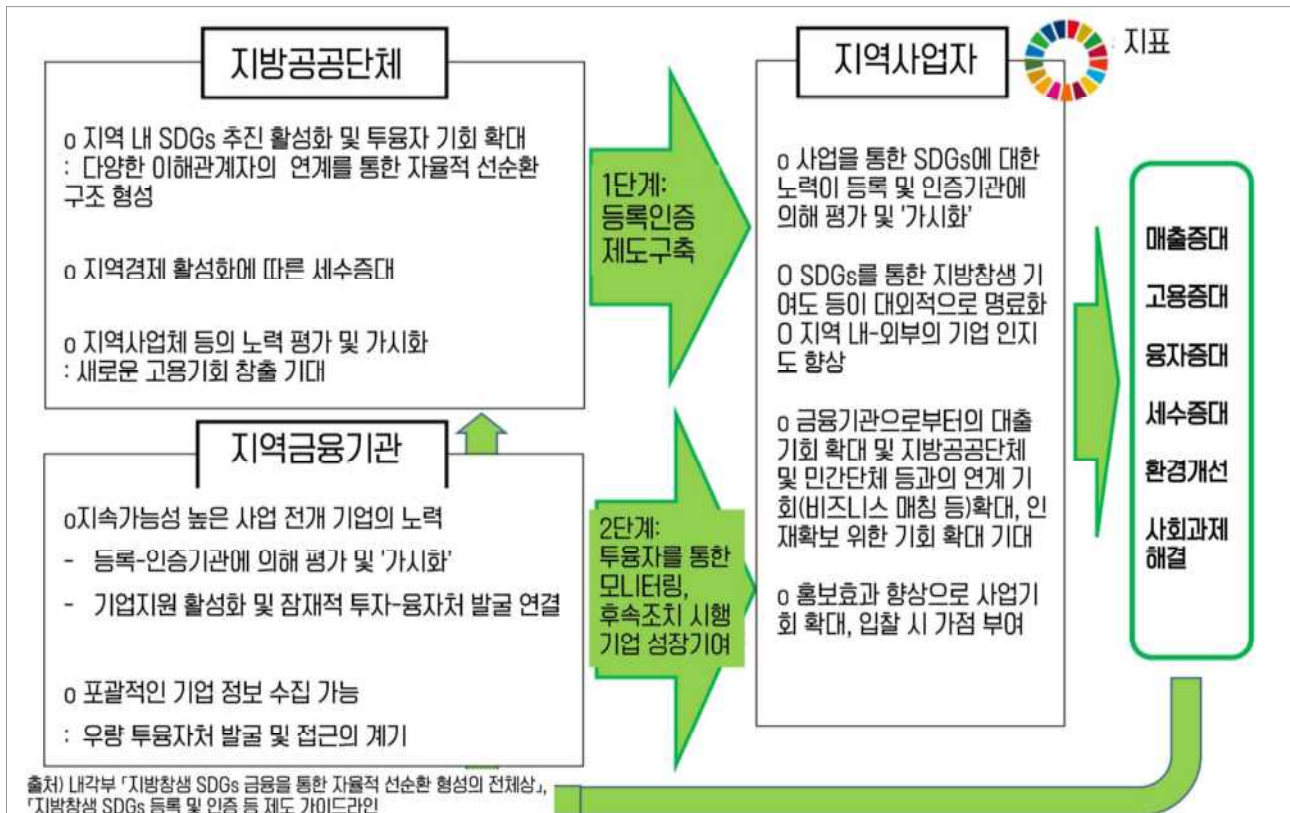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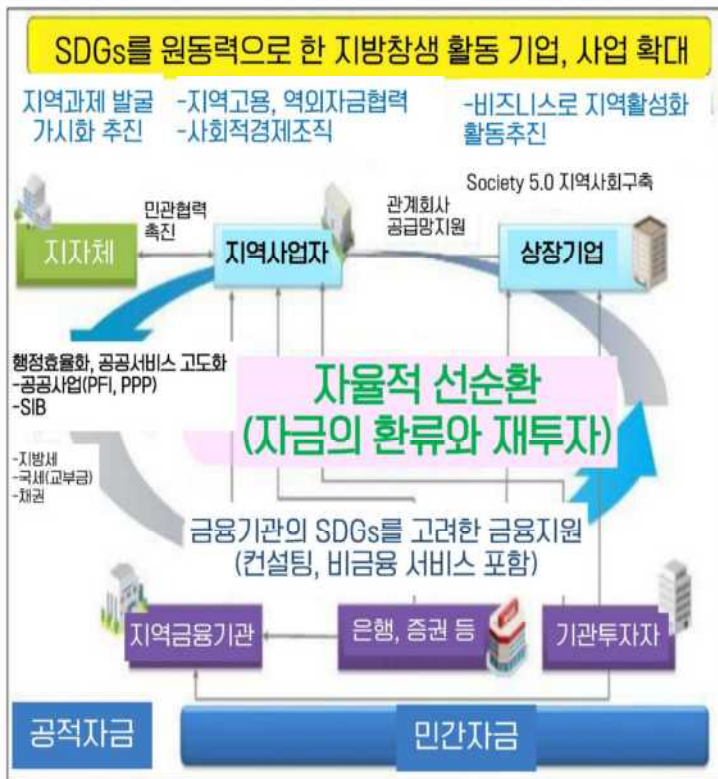
일본의 SDGs/ESG

사례 : 지방창생 금융

*지방창생 금융

- 대상 : 지역 내 SDGs 달성 및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업자
- 지원범위 : 금융 측면(투자, 융자,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등도 포함)
- 목적 : 지역 내 자금의 환류와 재투자 촉진
- 촉진방안 : 지방창생 SDGs 금융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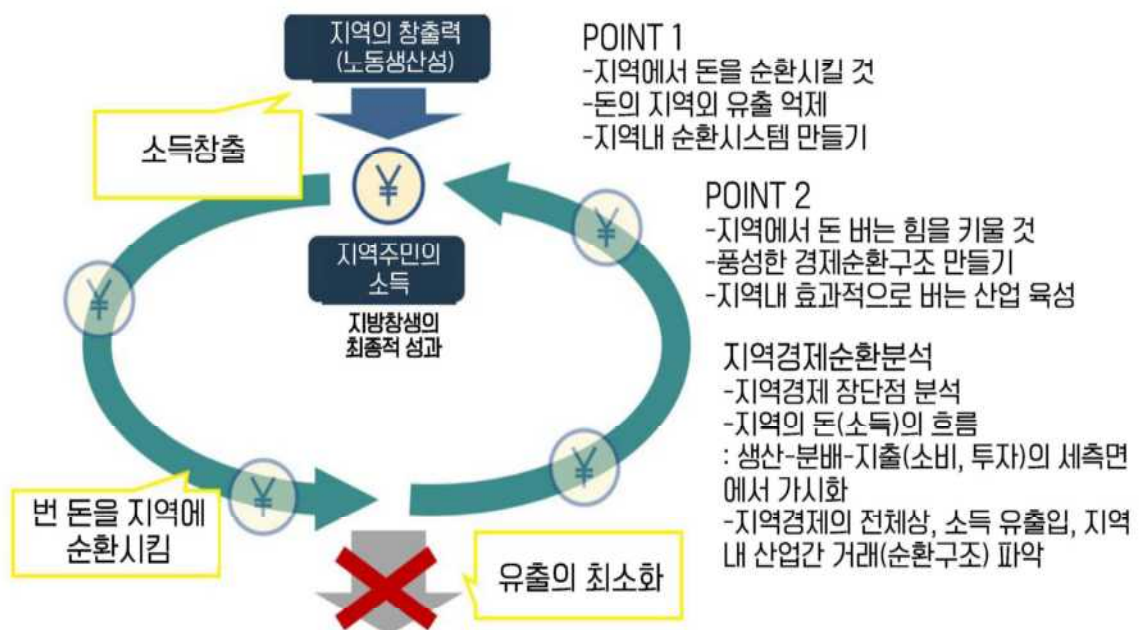
1단계 : 지역사업자 활동의 가시화
- '등록·인증제도' 구축
- SDGs 달성을 위한 주체의 저변 확대

2단계 :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사업자 간 연계
- 지역 금융기관(모니터링, 사후관리)
: 대상 기관의 육성, 성장 공헌
- 자체적인 심사역량 및 컨설팅 역량 등 강화

3단계 : 지역 금융기관 등과 기관투자자-
대형 은행-증권사 등의 연계 촉진
- 2단계 경험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금융
기관 협력 지원계획
- 기관투자자 등과 지역 금융기관 간 협업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지역을 강하게」하는 2가지 포인트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
기업의
ESG
경영사례
”

“
1. 기요은행
”

기요은행의 개요

기요은행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본사가 있는 지방은행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紀陽銀行



和歌山県
68점포*
인터넷 지점 포함

오사카부
41점포

나라현 외
3점포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기요은행의 지방창생 활동

- ✓ 기요금융그룹의 역할은, 「지역내외를 이어주는 가교역할」. 지역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지역 내외의 거래기업과 협력기업을 매칭하여 프로젝트 창출
- ✓ 지자체와 지역기업, 공공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안전의 코디네이터에서 금융까지 지원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3. 쿠시모토 로켓 발사장

- ✓ 일본 최초의 민간 로켓 발사장「스페이스 포트 기이(紀伊)」가 2021년 7월 쿠시모토초에 완성
- ✓ 2023년 여름경 1호기 발사와 2020년대 중반 연간 20기 발사를 목표
- ✓ 와카야마현 내외의 관광객과 운영회사로 인해 지역 고용 등 커다란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앞으로 우주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도 모색 중

경제파급효과

현의 추산으로 10년간 670억엔의 경제파급효과 발생될 것으로 추정

★ 건설투자효과	28億円
★ 발사장 운영효과	51億円/年
★ 관광객 소비효과	13億円/年

➡ 10년간 670억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출처: 와카야마현HP



스페이스원(주) (운영회사)

- 「계약부터 발사까지」『세계최단』과 발사의 『세계최고 빈도』를 목표 「소형 로켓을 이용한 발사 서비스」가 컨셉
- 캐논전자(주), (주)에이로 스페이스, 시미즈 건설(주), (주)일본정책투자은행이 출자하여 2018년에 발족 (기요은행은 2021년 2월에 3億円 출자)
- 발사를 위해 전장 약18m, 중량 약23 t의 3단식 소형로켓「카이로스」



출처: 스페이스원HP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췌

4. 난키 시라하마(南紀白浜) 공항으로 파견

- 2019년 4월에 민영화하여 경영공익재단을 모체로 하는「난키 시라하마공항」이 운영

➡ 공항형 지역창생으로 관광객 증가시켜 지역경제 확대를 목표로 함

2022년 4월부터 기요은행 지방창생 추진실에서 1명의 인력 파견

시책



- ① 난키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
- ② 해외 새로운 고객층 유치
- ③ 여름철 이외 및 평일 승객 유치

워크ایش션 추진을 위한 노력

시라하마초 지역 내 4곳에 IT 비즈니스 사무실 정비로 외부 기업 입주. 공항에 인접한 광장 내에도 비즈니스 거점 탄생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췌

5. 클라우드 펀딩

- ✓ 인터넷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출자나 지원을 받는 클라우드 펀딩 활동 지원
- ✓ 상품PRO이나 테스트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클라우드 펀딩 사업자 소개

지원했던 프로젝트

“궁극의 상품”아웃도어 스파이스「골드 호레니시」탄생

기요은행에서 클라우드 펀딩 제안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과거지원 프로젝트 200건 이상

출처: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췌

6. 지역탈탄소

- ✓ 「탈탄소 선도지역 계획」의 연계금융기관으로서 협력 (와카야마시, 가와치나가노시)
- ✓ 「사카이 에코라이프 포인트 사업」(※1)에 협찬, 「S M I (사카이·모빌리티·이노베이션) 프로젝트」(※2) 실증사업에 협력
-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티 자국과 포인트 부여로 시민의 환경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탈탄소화를 도모
- ※2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의 주행실험 차세대 도시교통 (ART) 도입 실험

(주) 탈탄소화 지원기구의 주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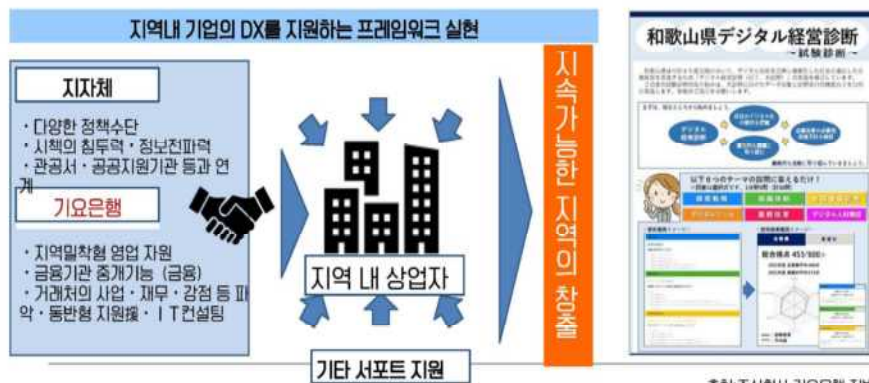
- ✓ 민간 협력으로 설립된 환경부 소관 주식회사에 **출자**.
- ✓ 민간협력의 탈탄소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탈탄소화 실현을 목표로 함



출처: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췌

7. 지자체(와카야마현)과 DX화 활동 노력

- ✓ 「2019년도 와카야마 디지털 경영진단 환경 구축업무」수탁
디지털 경영진단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진단항목, 진단도구, 진단시스템, 시험진단 실시 등)
- ✓ 「2022년도 와카야마현 디지털 경영진단 실시·분석업무」수탁
2021년도에 정비한 경영진단 툴을 활용한 온라인 경영진단 실시 (1,000명)
- ✓ 「DX챌린지 서포트 프로그램」수탁
지역내 기업 3개사 정도를 선정하여 6개월간 동행지원을 실시. DX추진계획 (3년~5년) 을 책정하여 DX의 롤모델 창출과 동시에 추진내용을 폭넓게 전파하여 지역내 기업의 DX추진 분위기 조성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8. 키노가와시(紀の川市) 유휴 부동산 활용사업 참여

- ✓ 키노가와시, ㈜엔조이웍스, ㈜기요은행, ㈜일본정책 금융공사 와카야마 지점
- ✓ - 「사업자 육성형 공모in와카야마 키노가와시」의 운영사무국
- ✓ - 시 소재 3곳의 유휴부동산 활용 추진 사업 실시
- ✓ 기요은행은 사업홍보와 연수 프로그램 참여 (은행용자 포인트 설명) 등에서 협력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9. 와고전(和高専)의 취직설명회

- ✓ 와카야마 공업고등 전문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취업설명회 개최
- ✓ 지역와의 취업율이 높은 와고전 학생의 유출방지와 지역기업의 고용확보가 목적
- ✓ 채용 니즈가 있는 지역내 우수 고객처를 학교에 소개하고 학생과의 접점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활동에 협력

매년 **40개 회사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

96명의 채용실적(※과거 13회 누적)



도쿄 걸즈 컬렉션

- ✓ 간사이 최초의 TGC 지방창생 프로젝트로 2023년 2월 11일(토)에 와카야마 박물관에서 개최
- ✓ 기요은행은 **협찬과 당일 행사장 불런티어 참가**



TGC와카야마 총 체험
객 수 약139만 6천명

여성 행원이 행사장에서
양케이트 조사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췌

10.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 ✓ 와카야마현「성장지향 창업지원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와카야마 이노베이션 베이스의 설립부터 이사로 협력
- ✓ 산관학 연계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 스타트업 기업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와카야마현 내의 기업의 발전, 창업가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 ✓ 앞으로 회원사에서 성장기업을 배출하고 매출 10억엔 이상의 기업을 만들어, 와카야마현 전체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활동

시민 자긍심 고취

- ✓ 키노가와시가 역사를 통해 시민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제작하는 역사 프리 매거진의 발행에 협찬
- ✓ 지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청취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원이 되는 기업과 관계 맺기 실시
- ✓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출처: 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췌

11. 이주 정착의 촉진

「일」이 있는「삶」의 체험

- ✓ 와카야마현은 이주 정주 촉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 와카야마 캐리어 체인지 응원 프로젝트, 「일」이 있는「삶」체험 및 학생 관계인구 창출사업 업무 시작. 그 중에서도 지역에 관심있는 학생과 젊은 힘을 필요로 하는 지역내 사업자를 연결하는 매칭사이트에서 매칭된 지역사업자의 사업장에 학생이 도와주는 사업의 일부 위탁
- ✓ 기요은행은 학생에게 도움받고 싶은 지역 사업자 발굴하여, 17개 사업자 소개.

"わかやま"とあなたをつなぐマッチングアプリ
わかやま CREW



※(주) 로컬리스트...2021년1월에 창업한 지역상사.
기요은행은「지방창생에 관한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전개

WAKAURA MEIKOU WANDER STREET

- 와카야마시가 주최하는이주촉진,지역활성화 이벤트「WAKAURA MEIKOU WANDER STREET」에 협력
- (주) 와카우라 지점을 활용하여, (주)로컬리스트(※)의 매장을 내고 이주자와 콜라보로 상품의 판매 및 공예체험 실시



출처: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기요은행 SDGs」선언 공표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다양한 경영지원을 활용해 SDGs가 지여것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 고객의 SDGs 실천을 지원합니다.



★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지역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IT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일에서의 보람을 향상시키고, 모든 인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 지역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처: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기타 SDGs 활동

기요은행은 SDGs달성을 위한 노력과 지방창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와카아마현 <기업의 숲> 사업 참여

사업실적

누계 식재수 약 7,400그루(2006~2021년)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제3회 전일본 사회인 농구 지역리그 챔피언십 우승!



농구클리닉 개최 77회
참가자 연인원 3,760명

(2011/4~2022/4)

출처: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기타 SDGs 활동

재생에너지 활동

- ★ 매년 전기사용료 감축목표를 설정(전년도 대비 1%감축) 에너지 절약활동을 추진
- ★ 또한 2022년2월부터 은행 본유 부동산「본점」「무카이시바 오피스」「연수센터 빌딩」에 간사이 전력 주식회사가 제공하는「재생에너지 ECO플랜」을 도입. 이 플랜의 도입에 따라 3개 거점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함으로써, 기요은행의 전력에 사용되는 CO2배출량이 크게 삭감될 예정

연간CO2배출량 감소 예상량 1,690톤

(기요은행 전력에 대한 연간CO2 배출량 40% 감소 예상)

거점명	본점	무카이시바 오피스	연수센터 빌딩
연간CO2 배출량	162톤	1,228톤	300톤
감소예상량			
	【本 店】	【無形オフィス】	【研修センタービル】

전기자동차「C+pod」의 도입

- 2022년3월에 토요타 자동차가 취급하는 전기자동차「C+pod」를 도입. 도입 차량을 본부의 영업차량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본점 주차장 내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 가능해짐



출처:주식회사 기요은행 지방창생추진실 발표자료 발제



오사카 상공회의소의 SDGs · ESG 비즈니스 플랫폼

- 2023년 5월 10일 현재 1,103개사 등록, 1,447건의 활동 진행
- 일본에 있는 515개 상공회의소 중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SDGs 활동 처음 실시
- 등록회사 3단계로 분류하여 지원
- 알기 쉽게 연예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부스 운영, 방송 홍보 등 진행
- 비즈니스를 통한 SDGs 달성 활동 전개 :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중요
- 탄소중립,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SDGs 활동 전개
- : 정보를 알리고 매칭해주는 역할 진행
- 코스닥 상장 시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의무화, GX(Green Transformation) 지원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
“키노가와시의 고향납세제 운영 사례”

니시가와 요이치로 | 키노가와시청 지역창생과 반장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 地域活性化について

고향납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대하여

 紀の川市 (기노카와시)
西川 洋一郎
(니시카와요이치로)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西川 洋一郎
니시카와 요이치로

- ✓ 出身 和歌山県紀の川市
출신 와카야마현기노카와시
- ✓ 年齢 49歳 (1974年生まれ)
연령 49세 (1974년 생)
- ✓ 仕事 紀の川市役所(公務員)
직업 기노카와시청(공무원)
- ✓ 所属 企画部地域創生課
소속 기획부 지역창생과

「ふるさと納税」を使って
地方を活性化する方法について
「고향납세」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법에 대하여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和歌山県 紀の川市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 大阪の南にある和歌山県北部に位置し、温暖な気候

오사카 남부에 있는 와카야마현 북부에 위치, 온난한 기후

- 関西国際空港まで車で40分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차로 40분

- 韓国済州道西帰浦市と姉妹都市

한국 제주도 서귀포시와 자매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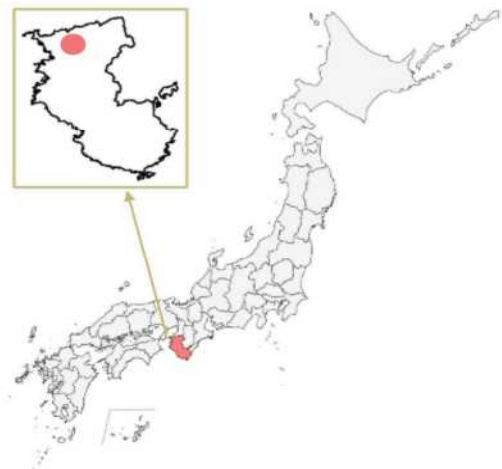
- 主な産業

주요산업

農業（桃、柿、いちご、みかん）

농업 (복숭아, 감, 딸기, 감귤), 제조업

製造業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人口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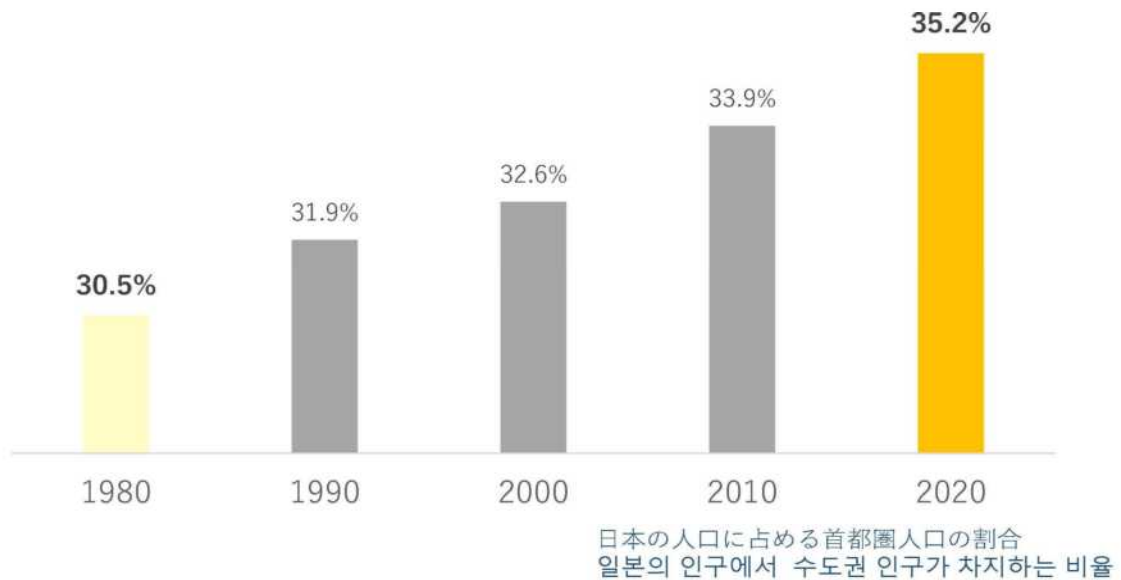
紀の川市
기노카와시
59,000人

和歌山県
와카야마현
890,000人

東京都
도쿄도
14,000,000人
(和歌山県の15.7倍)
(와카야마현의15.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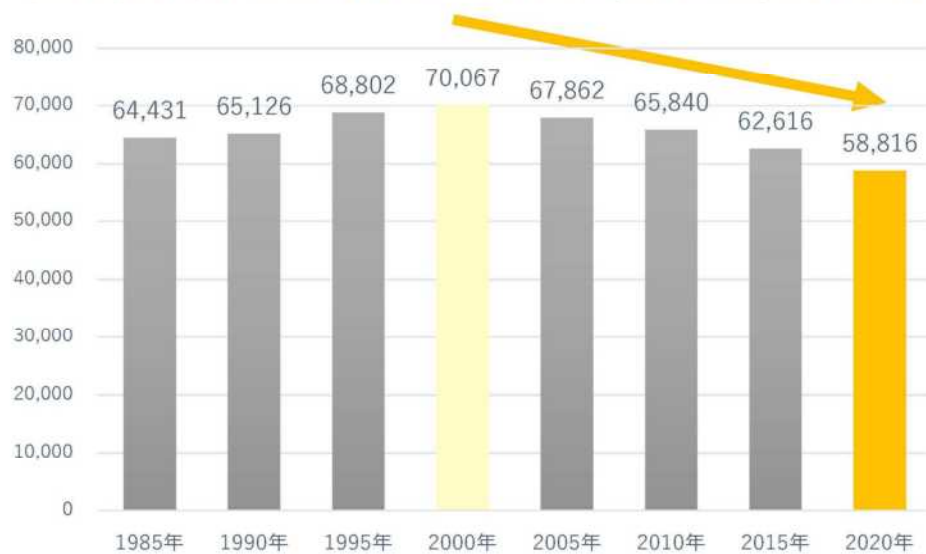
日本人の8.5人に1人は東京都在住
일본인의 10명 중 1명이 도쿄도 거주

人口減少が進むが、首都圏の人口割合は上昇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비율은 상승



紀の川市の人口は、2000年頃をピークに減少傾向 20年間で1万1千人以上が減少

기노가와시 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20년간 11,000명 이상 감소



20年間で16%の人口減少
20년간 16%의 인구감소

紀の川市だけでなく
기노카와시뿐만 아니라

地方から都市に人口が集中
지방에서 수도로 인구가 집중

三大都市圏の転入・転出超過の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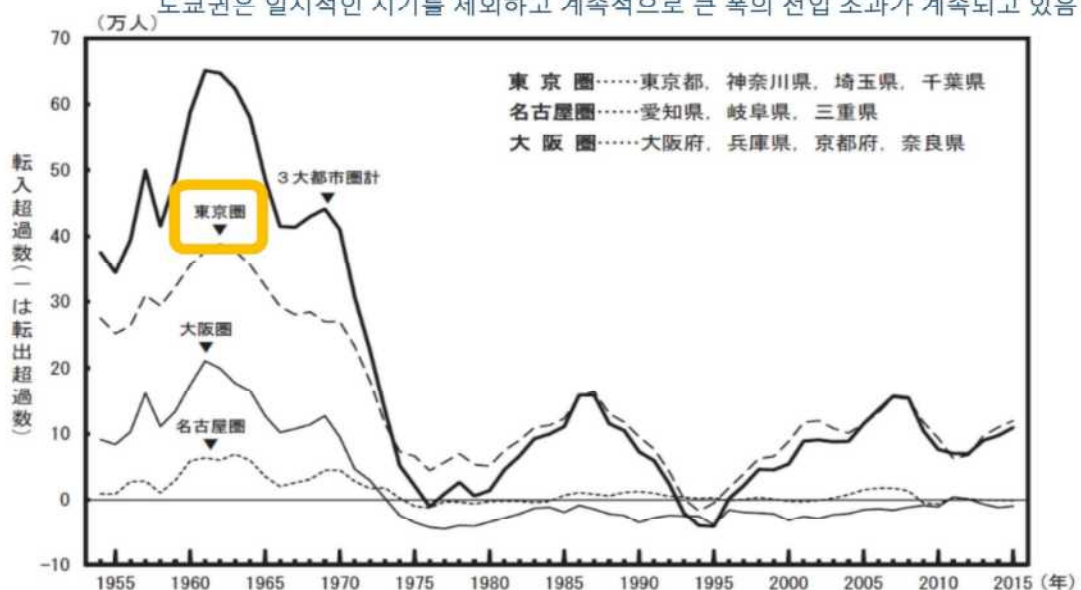
3대 도시권전입·전출 초과 추이

大阪圏、名古屋圏においては、1970年代半ば以降転入超過が鈍化している一方、

東京圏においては一時期を除いて引き続き大幅な転入超過が続いている。

오사카권, 나고야권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전입 초과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도쿄권은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큰 폭의 전입 초과가 계속되고 있음



出典: 総務省統計局「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2015年結果」

人口だけでなく
인구뿐만아니라

お金も都市に集中
돈도 도시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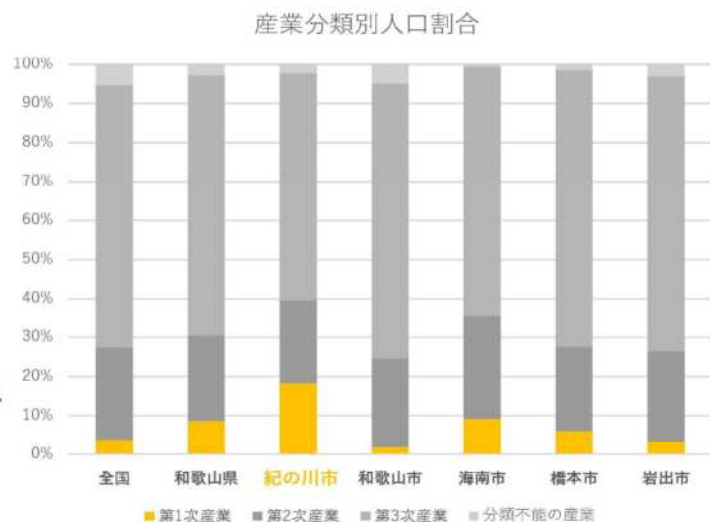
人口だけでなく、地方と都市は収入にも格差

인구 뿐만 아니라 지방과 도시는 수입에서도 격차



紀の川市は、過疎地域になったが
 かつては「桃」「はっさく」「みかん」「たまねぎ」
 など
 農業を主要産業として栄えた地域だった
 기노카와시는과소지역이 되었지만
 과거에는「복숭아」,「하사쿠」,「감귤」,「양파」
 등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여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県内の他市と比べると
 紀の川市は
 第1次産業（農業）が優位
 현 내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기노카와시는
 제1차 산업 (농업)이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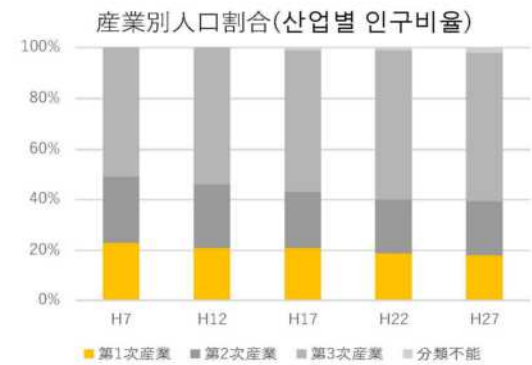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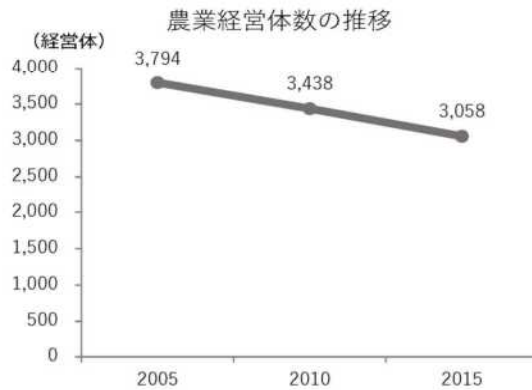


しかし

農家の数は年々減少

그러나

농가수는 해마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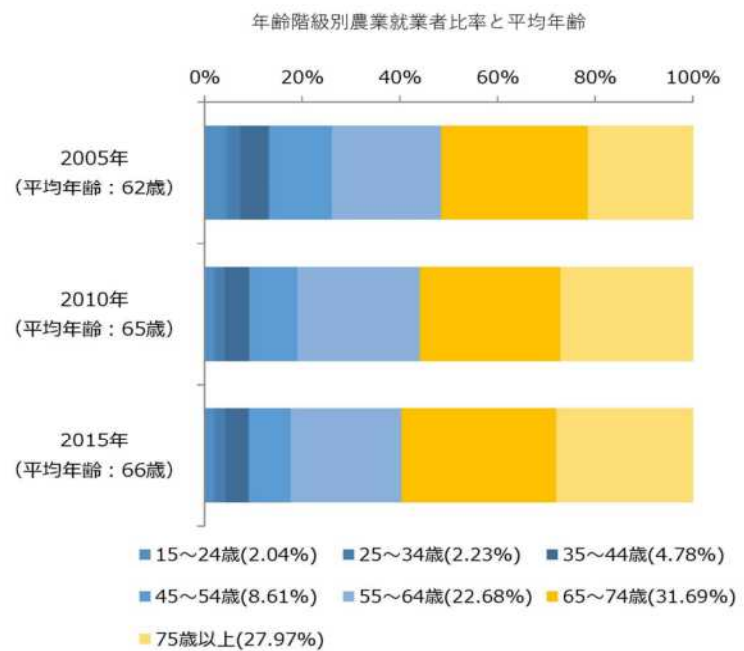


農家の平均年齢は上昇

半数以上が65歳以上

농가 평균연령은 상승

절반이상이 65세 이상



かつて主要産業だった農業は儲からないことから、農業者は、高齢化し、減少している。
과거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농업종사자는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음

かつての主要産業だった農業は衰退、
人口減少・少子高齢化が進行
空き家が増加

과거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은 쇠퇴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빈집이 증가

地域活性化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
지역 활성화를 해 나가야 함

▶ ふるさと納税制度を使って地域活性化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지역 활성화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2008年から日本で「ふるさと納税制度」がスタート

2008년부터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 시행

2023年1月から韓国でも

2023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故郷愛寄附制 고향사랑기부제」가スター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日本の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自分の住んでいる地域以外に寄付をすると、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 이외에 기부하면

自分の住んでいる地域의 税金が控除される制度。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

ふるさと納税で50,000円寄付する場合

고향납세로 50,000엔을 기부하는 경우



ふるさと納税で50,000円寄付する場合

고향납세로 50,000엔을 기부하는 경우



ふるさと納税で50,000円寄付する場合

고향납세로 50,000엔을 기부하는 경우



ふるさと納税で50,000円寄付する場合

고향납세로 50,000엔을 기부하는 경우



つまり…

返礼品 15,000円分 - 自己負担額 2,000円 = **13,000円分お得!**

返礼品（お礼の品）には、いくつかルールがあります。

답례품에는 몇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① 返礼品の額は、寄附額の **30%以下** であること

답례품의 금액은 기부액의 30%이하 일 것

- ② 返礼品の額と、送料、経費を合わせて寄附額の **50%以下** であること

답례품 금액과 배송비, 경비를 합쳐서 기부액의 50%이하 일 것

- ③ 返礼品は、**地場産品基準**※に合致すること

답례품은 지역 생산품 기준에 합치할 것

地場産品基準とは
지역생산품 기준은

■基準1■

기준 1

市内で生産されたもの
관내에서 생산된 것



地場産品基準とは
지역생산품기준은

■基準2■

기준 2

市内で原材料の主要な部分が生産されたもの

관내에서 원재료의 주요 부분이 생산된 것



地場産品基準とは
지역생산품 기준은

■基準3■

기준 3

市内で製造・加工の主要な部分を行うことで、相応の付加価値が生じているもの

관내에서 제조·가공의 주요 부분을 시행함으로 인해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



地場産品基準とは

지역생산품기준은

■基準4■

기준 4

市内で提供されるサービスで、主要な部分が市に相当程度関連性のあるもの

관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주요 부분이 시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



返礼品30%ルールや地場産品基準を巡っては、国と地方の間で争いがあった
답례품의 30% 규칙과 지역 생산품 기준을 두고 국가와 지방간 다툼이 있었음

大阪府泉佐野市 (財政難により破綻寸前だった。)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재정난으로 파탄 직전이었음)

2008年5月 ふるさと納税制度開始

2008년 5월 고향납세제도 개시

2017年4月 国は返礼品を30%以下にするよう通知(強制力はない)

2017년 4월 국가는 답례품을 30% 이하로 하도록 통지(강제력 없음)

2017年度 泉佐野市が100億円突破(Amazonの商品券が返礼品)

2017년도 이즈미사노시가 100만엔 돌파(아마존 상품권이 답례품)

2018年4月 国が返礼品を30%以下にするよう再通知(強制力はない)

2018년 4월 국가가 답례품을 30% 이하로 하도록 재통지(강제력 없음)

2018年度 泉佐野市が497億円(もともと500億円程度の予算規模)

2018년도 이즈미사노시가 497억엔(원래는 500억엔 정도의 예산규모)

2019年4月 返礼品率30%以下 総経費率50%以下に法改正

2019년 4월 답례품률 30% 이하 총경비율 50% 이하로 법개정



「自治体がたくさん寄附を集めて得をする」という制度ではなく、地域の事業者が、ふるさと納税制度を使って稼ぐことができる仕組みに制度が徐々に改正されてきたという歴史がある。

「지자체가 많은 기부를 모아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사업자가 고향납세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서서히 개정되어 온 역사가 있음

ふるさと納税市場は、今後どのようなになる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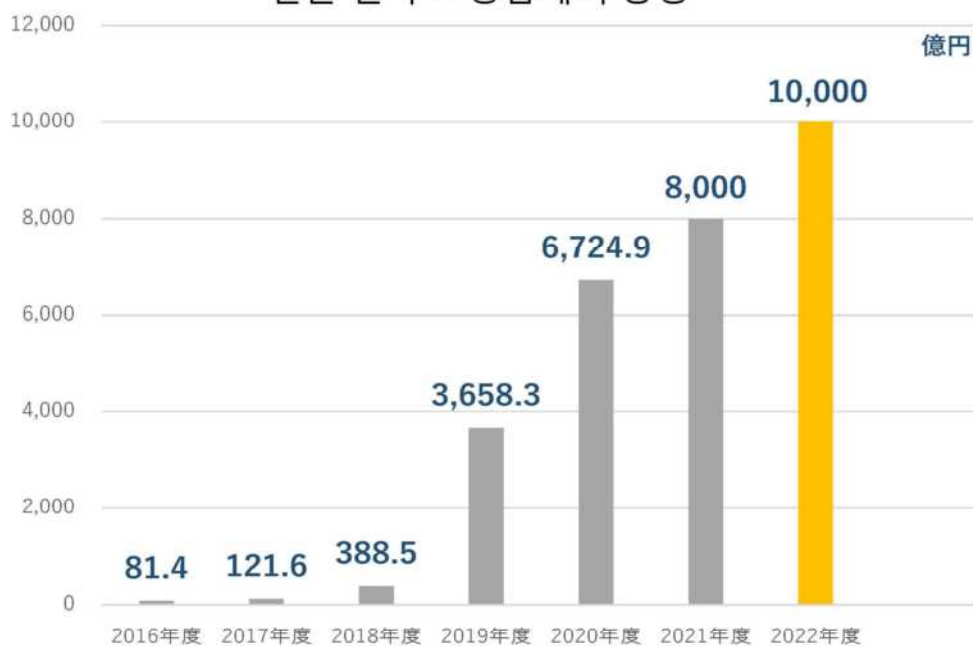
고향납세시장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ふるさと納税で寄附している人は、全国の納税者の15%程度
고향납세로 기부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납세자의 15%정도

まだまだ市場は拡大していく
아직 시장은 확대되고 있음

全国のふるさと納税の動向
일본 전국 고향납세의 동향



地方にとって、ふるさと納税の魅力は
지방에 있어, 고향납세의 매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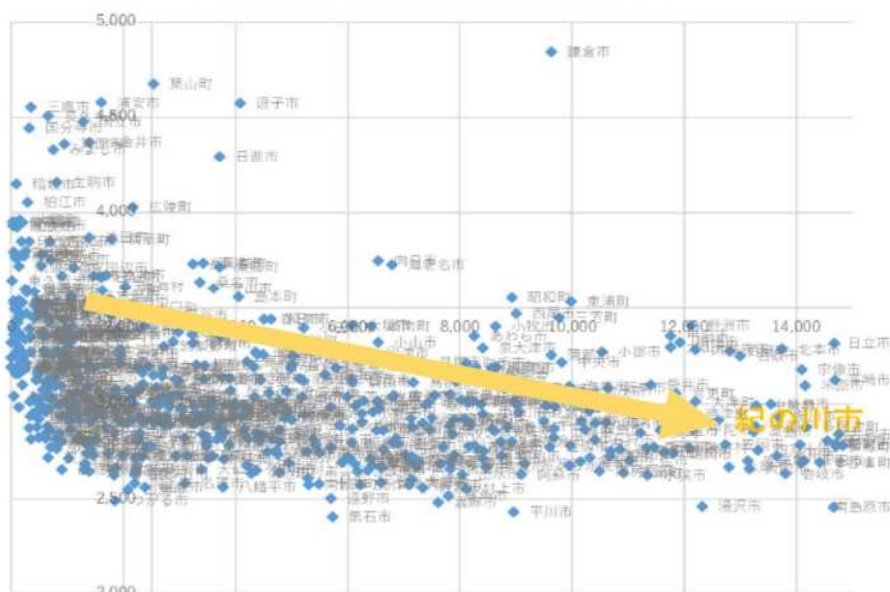


歳入予算の半分の寄附金を集める自治体も
세입예산의 절반을 기부금으로 모은 자치단체도

自治体の努力で地方にお金が集まる
지자체 노력여하에 따라 지방에 돈이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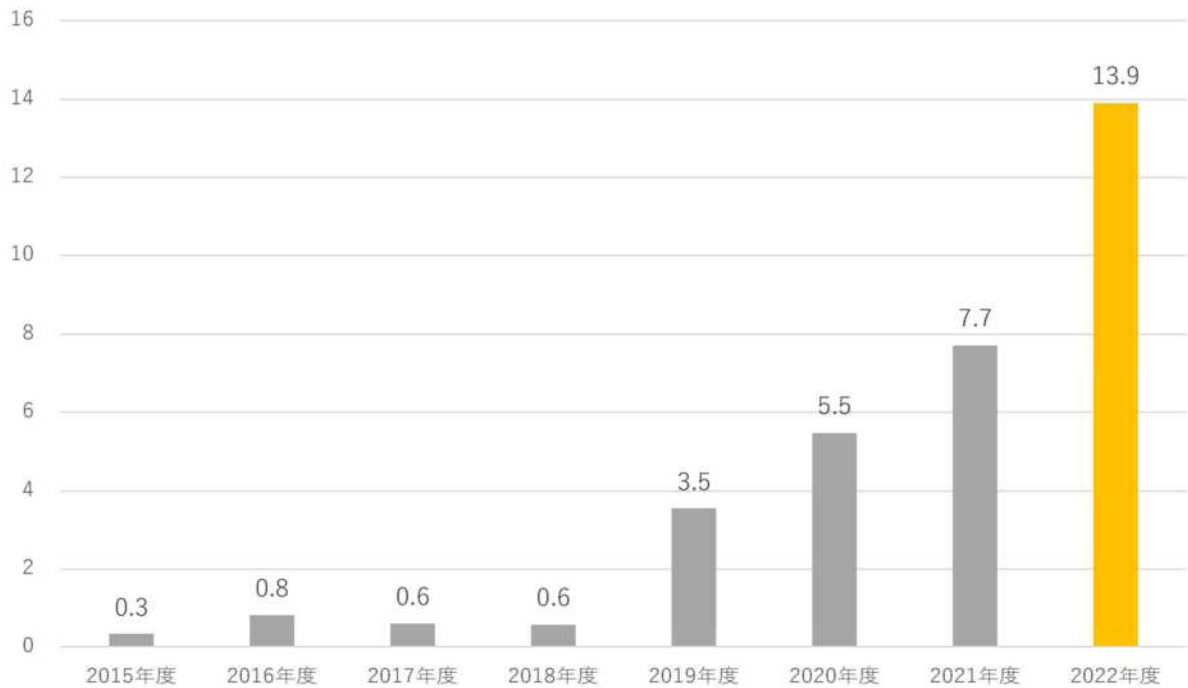
所得の多い自治体（都会）から所得の少ない自治体（地方）に財源が移転
소득이 많은 지자체(도시)에서 소득이 적은 지자체(지방)으로 재원이 이전

住民1人あたり寄附受入金額（X）／
納税義務者一人あたり課税所得額（Y）



ただし、例外もたくさん。自治体の努力によって差が大きい。
다만, 예외도 많이 있음.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큼

紀の川市への寄付額推移（単位：億円）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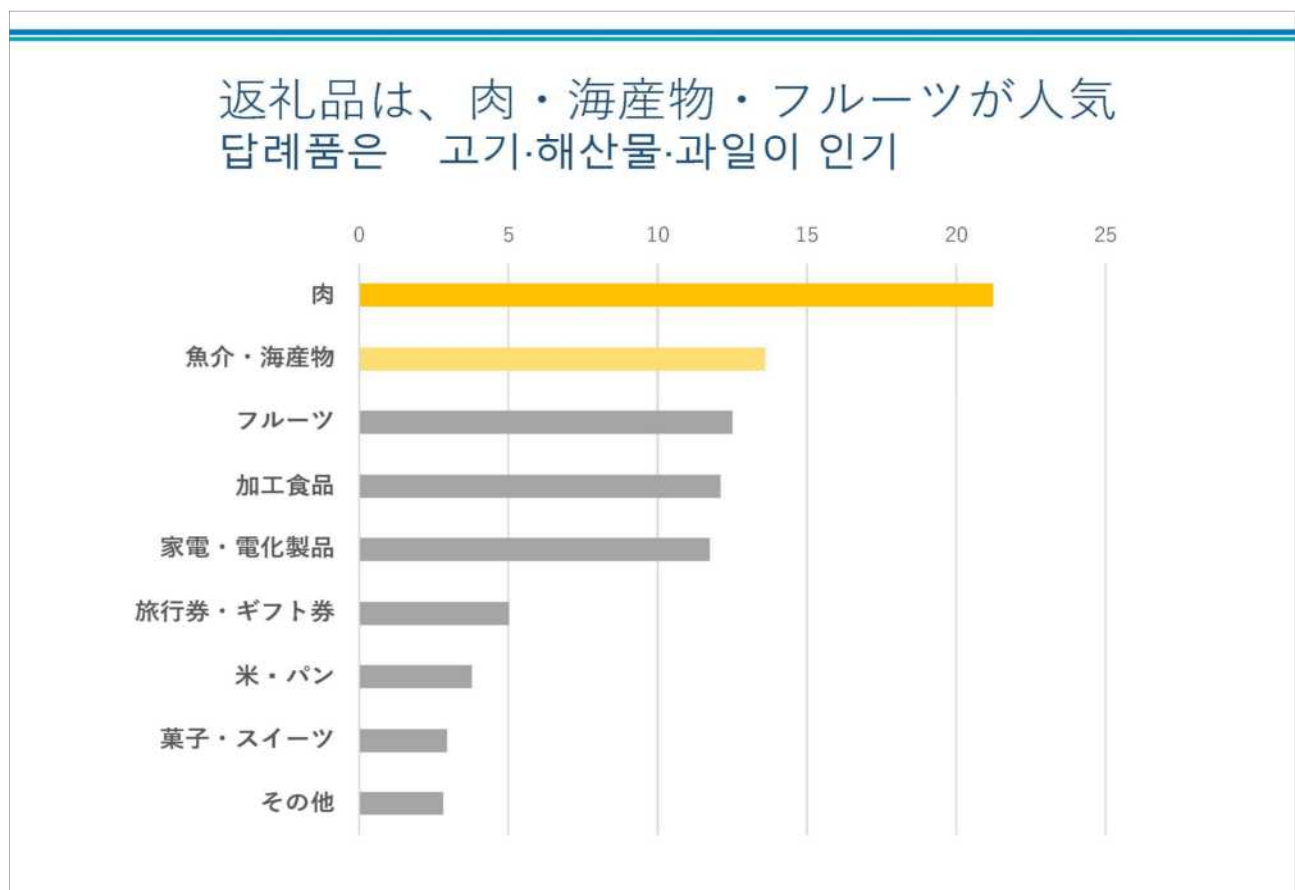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和歌山県紀の川市桃山町で栽培した あら川の桃 ご家庭用 約2kg (6~9玉入り)

和歌山県紀の川市 さとふるアプリdeワンストップ申請対象 ?

和歌山の桃の産地、紀の川市桃山町で栽培した「あら川の桃」を朝取りで当日発送させていただきます。

★★★★☆ 4.6 (9)

寄付金額 **10,000円**

お礼品発送予定時期

2024-06-10~2024-07-31

カートに入れる

お気に入りに登録

※離島、北海道、沖縄県、東北、関東、九州はお届けできません。また、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コンビニ決済」「Pay-easy決済」をご希望の場合のご注意

※お礼品の発送は、お支払い確認後となります。

※お支払い手続きは、申込受付期間中に完了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2023年度発送分】【和歌山の名産】紀の川柿 たっぷり約3.6kg・秀品

和歌山県紀の川市 さとふるアプリdeワンストップ申請対象 ?

樹上でじっくり完熟させた黒砂糖をまぶしたような果肉は、甘さと特有のコクを楽しめます。

★★★★☆ 4.6 (7)

寄付金額 **13,000円**

お礼品発送予定時期

2023-10-10~2023-11-15

カートに入れる

お気に入りに登録

※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コンビニ決済」「Pay-easy決済」をご希望の場合のご注意

※お礼品の発送は、お支払い確認後となります。

※お支払い手続きは、申込受付期間中に完了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産直】冷凍いちご まりひめ 和歌山県紀の川市 500g×2

和歌山県紀の川市

さとふるアプリ/daフリストップ申請対象

和歌山県限定品種「まりひめ」の冷凍いちごです。

★★★★☆ 4.4 (14)

寄付金額 6,000円

🚚 お礼品発送予定時期

お申込みから1週間程度でお届け

🛒 カートに入れる

♡ お気に入りに登録

※産直品はお届けできません。また、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冷凍

「コンビニ決済」「Pay-easy決済」をご希望の場合のご注意

※お礼品の発送は、お支払い確認後となります。

※お支払い手続は、申込受付期間中に完了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黒毛和牛 切り落とし 1kg A4～A5ランク_S001-001

熊本県天草市

さとふるアプリ/daフリストップ申請対象

11月以降～60日以内に順次発送(2023年9月23日～お申込み分より) ★★天草市では返礼品の発送通知メールをお送りできません★★ ☆マイページ上の「配送状況」は、実際の状況は反映されず「自治体照会」と表示されます。予めご了承の上、お申込みください。

★★★★☆ 4.5 (149)

寄付金額 10,000円

🚚 お礼品発送予定時期

11月以降～60日以内に順次発送します。(2023年9月23日お申込み分より)

🛒 カートに入れる

♡ お気に入りに登録

※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冷凍

「コンビニ決済」「Pay-easy決済」をご希望の場合のご注意



オホーツク産ホタテ玉冷大(1kg)

北海道紋別市 [さとふるアプリでワンストップ申請可能](#) [?](#)

お刺身・フライ・バター焼き・ホタテマリネ等さまざまな料理に使用出来ます。オホーツク産のホタテは、北海道内でも稚貝(一年貝)を放流してから4年間流水や水温の低い荒波の中で遅く育つ為、養殖とは、まったく違い旨味が凝縮されており食感も良いと言われております。大粒で食べ応え抜群ドーンとたっぷり1kg/パッケージがチェック付きの袋に改良されたので、保存が便利になりました!

★★★★★ 4.8 (999)

寄付金額 14,000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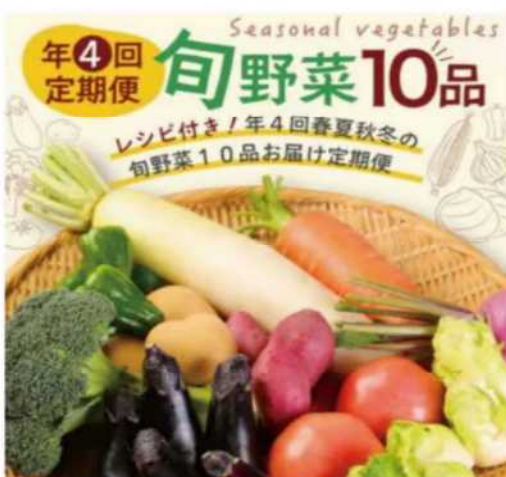
お礼品発送予定時期

入金確認後～最長1カ月半程度(着日・着曜日指定不可※お申込状況によっては発送までにお時間が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恐れ入りますが、紋別市では仕様上、お礼品発送時のお知らせメールを送付できかねます。何卒、ご了承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致します。

カートに入れる

お気に入りに登録

※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レシピ付き! 年4回春夏秋冬の旬野菜10品お届け野菜定期便 野菜セット

高知県室戸市 [さとふるアプリでワンストップ申請可能](#) [?](#)

春夏秋冬季節野菜セットお届け年4回定期便 時期によって、旬のとまと(トマト)、なす、さつま芋(さつまいも)、大根、じゃがいも、人参(ニンジン)、キャベツ、白菜などを野菜詰め合わせセットをお届け! 野菜は、野菜ジュース・野菜スープを作ったり、アウトドア、キャンプなどのBBQ(バーベキュー)にもご活用いただけます。

★★★★★ 4.6 (15)

寄付金額 24,000円

お礼品発送予定時期

ご入金確認後、季節の野菜が準備でき次第発送可能 お届けについては、ご寄付いただいた季節の次の季節からお届けします。例 春(3.4.5月)の期間にご寄付いただいた場合、次の季節の夏から1回目の野菜をお届け。

カートに入れる

お気に入りに登録

※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定期便](#) [冷蔵](#)



お礼品ID1077720

空き家管理サービス(月1回・計12回分)

青森県三沢市 さとふるアプリでワンストップ申請対象 ?

遠方に住んでいて、なかなかご確認等が難しい皆様に代わりまして、空き家の管理報告を致します。

☆☆☆☆☆ 0.0^①
寄付金額 **30,000円**

お礼品発送予定時期
 お申込みから1週間程度

カートに入れる

♥ お気に入り登録

※ 2023年10月よりサービス開始



お礼品ID1077720

あおぞらオリジナルクッキーセット◎作業所のみ んなで力を合わせて作りました◎箱入り

兵庫県朝来市 さとふるアプリでワンストップ申請対象 ?

朝来市内にある福祉施設あおぞらの利用者さんが丁寧に作っています。「たけじいクッキー」入り。

☆☆☆☆☆ 0.0^①
寄付金額 **10,000円**

お礼品発送予定時期
 2023-10-19より順次発送
※生産・天候・交通等の事情により遅れる場合があります。

カートに入れる

♥ お気に入り登録

※画像はイメージです。
※注意事項をご確認ください。






「コンビニ決済」「Pay-easy決済」をご希望の場合のご注意

※お礼品の発送は、お支払い確認後となります。

※お支払い手続きは、申込受付期間中に完了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紀の川市では、現在15のふるさと納税サイトがあります。

기노카와시에는 현재 15개의 고향납세 사이트가 있음



ふるさと納税の運営はやることがたくさん 고향납세 운영은 할 일이 많음

・WEBサイトを作成・管理
웹사이트 작성·관리
・寄付金を収受
기부금 수수
・返礼品の在庫を管理
답례품의 재고관리
・返礼品を発注
답례품의 발주
・運送業者を手配
운송사업자 준비
・問い合わせに対応
문의사항 대응
・返礼品事業者の新規開拓
답례품 사업자의 신규 개척
・税金の控除のための手続
세금의 공제 절차



自治体の職員がすべてやる
ことはできない。
지자체 직원이 모두 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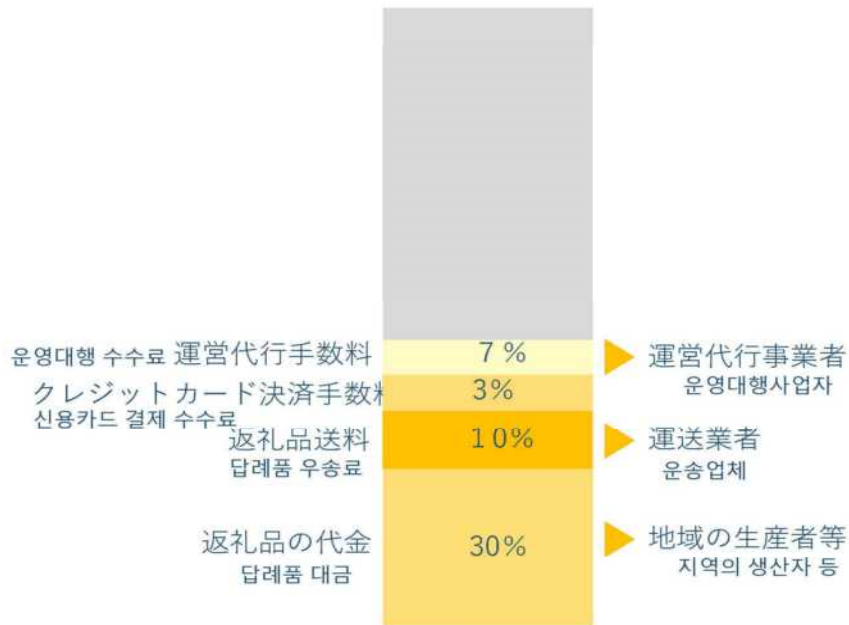
ふるさと納税運営代行業務を民間企業に委託 고향납세 운영 대행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

・WEBサイトを作成・管理
웹사이트 작성·관리
・寄付金を収受
기부금의 수수
・返礼品の在庫を管理
답례품의 재고 관리
・返礼品を発注
답례품의 발주
・運送業者を手配
운송업자의 준비
・問い合わせに対応
문의사항 대응
・返礼品事業者の新規開拓
답례품 사업자의 신규 개척
・税金の控除のための手続
세금의 공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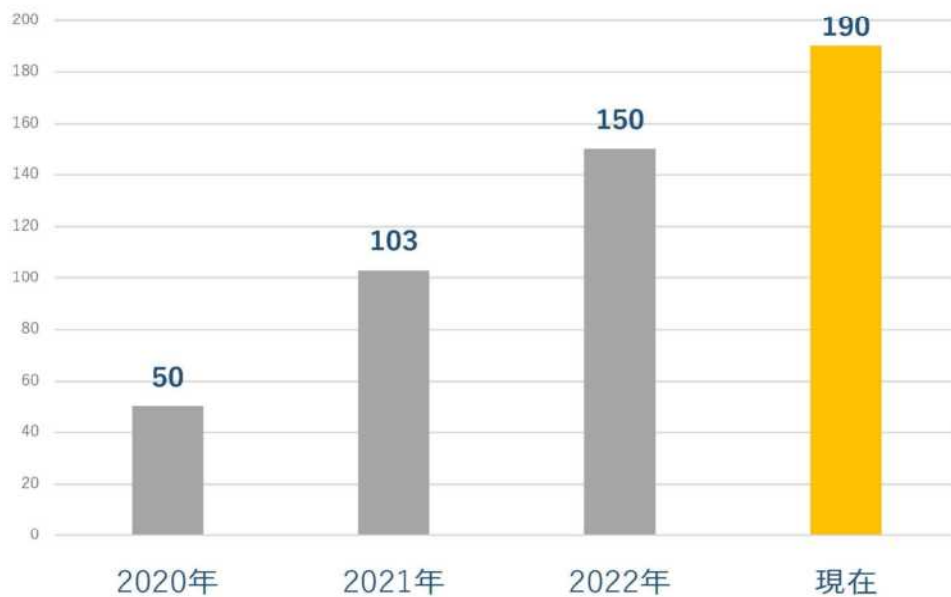


市内の企業に委託
관내의 기업에 위탁

ふるさと納税の経費内訳 경비 내역



紀の川市のふるさと納税返礼品事業者はどんどん増加 기노카와시고향납세 답례품 사업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多様な事業者が
返礼品提供事業者として登録されています。
다양한 사업자가
답례품 제공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음

農産物(농산물)



加工食品(가공식품)



サービス(서비스)



工芸品(공예품)



酒・飲料(주류·음료)



紀の川市の人気の返礼品は果物に集中
기노카와시의 인기 답례품은 과일에 집중

【令和4年度】返礼品カテゴリ別寄附実績

1. 全体

(単位：円、件)

カテゴリ (大分類)	寄附額			件数		
		割合	順位		割合	順位
役務(イベント・外出等)	958,000	0.1%	14	85	0.1%	13
酒類	1,010,000	0.1%	13	68	0.1%	14
飲料類(酒類除く)	27,304,000	2.0%	3	2,670	2.3%	3
加工品	38,100,000	2.7%	2	2,950	2.5%	2
果物類	1,272,188,000	91.7%	1	109,718	93.5%	1
菓子類	1,500,000	0.1%	11	112	0.1%	11
雑貨・日用品・工芸品	3,453,000	0.2%	7	87	0.1%	12
肉類	4,801,000	0.3%	5	302	0.3%	5
美容・健康	3,245,000	0.2%	8	257	0.2%	6
米・穀物類	510,000	0.0%	15	44	0.0%	15
麺類	1,187,000	0.1%	12	142	0.1%	10
野菜類	1,745,000	0.1%	10	211	0.2%	7
卵・乳製品	1,870,000	0.1%	9	190	0.2%	8
定期便・セット	26,081,800	1.9%	4	304	0.3%	4
CPN・限定品	0	0.0%	16	0	0.0%	16
その他	3,797,000	0.3%	6	145	0.1%	9
合計	1,387,749,800	100.0%		117,285	100.0%	

他の品物をもっと揃えていく必要がある。
다른 물품을 좀 더 구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ふるさと納税制度が地方にもたらす経済効果①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①

農家などBtoBの事業者が、直接消費者に販売できる。

농가 등 BtoB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할 수 있음

ふるさと納税制度が地方にもたらす経済効果②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②

自社ECサイトを作ってもなかなか見てもらえないが、ふるさと納税のポータルサイトならインターネットが苦手な事業者でも全国から見てもらえる。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EC사이트(전자상거래사이트) 만들더라도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고향납세 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자라도

ふるさと納税制度が地方にもたらす経済効果③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③

送料は自治体が負担するため、地方からでも都市部へ販売しやすい。

운송료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도시지역에 판매하기 쉬움

ふるさと納税制度が地方にもたらす経済効果④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④

売り上げが拡大したことによって新たな雇用を生んでいる。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目次

01 自己紹介

자기소개

02 紀の川市の概要

기노카와시 개요

03 地方の課題

지방의 과제

04 ふるさと納税制度とは

고향납세제도는

05 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

고향납세의 답례품

06 ふるさと納税の運営代行業務

고향납세의 운영대행업무

07 ふるさと納税が地方にもたらす効果

고향납세가 지방에 가져다 주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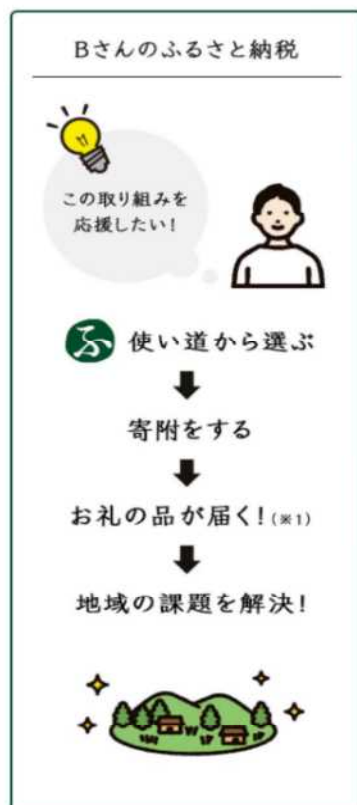
08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거버먼트클라우드펀딩



現在は、返礼品（商品）を選んでもらう制度
현재는, 답례품(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どういう使い道にするかは自治体に
裁量があることがほとんど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지자체에 재량이 있는
경우가 보통



返礼品ではなく、使い道を寄附者が選ぶ制度
に

も自治体が運用できる!
답례품이 아니라, 사용용도를 기부자가
선택하는 제도도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음

↓
ガバメント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Government Crowdfunding
거버먼트크라우드펀딩

例) こども食堂(예) 어린이 식당)

「つらい」が言えない親子を支える。命をつなぐ「こども宅食」を全国に広げたい。

カテゴリー:子ども・教育



ツイート

寄付金額

3,765,000円

20.9%

目標金額:18,000,000円

達成率

20.9%

支援人数

13人

終了まで

336日 / 349日

佐賀県NPO支援(さがけん えぬびーおーしえん)

♡ お気に入り

ふるさと納税で応援

> 対応している決済方法

寄付募集期間:2023年4月18日~2024年3月31日(349日間)

例) 養護施設の支援(예)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養護施設の「子どもの日」夏のおやつをプレゼント!話題のアイス「ブラックモンブラン」を送ります

カテゴリー:子ども・教育



「子どもの日」にブラックモンブランを贈ります

ツイート

寄付金額

294,000円

9.8%

目標金額:3,000,000円

達成率

9.8%

支援人数

18人

終了まで

63日 / 87日

佐賀県NPO支援(さがけん えぬびーおーしえん)

♡ お気に入り

ふるさと納税で応援

**ふるさと納税で地方を活性化！
고향납세로 지방을 활성화!**



고향납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대하여

紀の川市 (기노카와시) 기획부 지역창생과

西川 洋一郎 (니시카와 요이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 납세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니시카와 요이치로라고 합니다.

고향은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라는 곳입니다.

나이는 서른다섯 살입니다.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향인 기노카와 시청의 지역창생과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 납세(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일본 제도의 시스템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기노카와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는 오사카의 남쪽에 있는 와카야마현 북부에 위치한 온난한 기후의 지역입니다.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농촌 도시로 복숭아, 감, 딸기, 귤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 도시이고, 서귀포시청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함께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노카와시를 비롯한 일본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노카와시의 인구는 현재 약 59,000명입니다. 기노카와시가 속해 있는 광역지자체인 와카야마현의 인구는 약 89만 명인데 매년 약 1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인구는 1,400만 명으로 와카야마현의 15.7배에 달합니다.

일본인 8.5명 중 1명은 도쿄에 살고 있으며,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4,434만 명으로 일본인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기노카와시의 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20년 동안 1만 1천여

명, 16%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비단 기노카와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오사카, 나고야 등 도쿄 이외의 대도시권에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도쿄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인구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의 평균 연봉은 전국 1위로 약 620만 엔인 반면, 전국 25위인 와카야마현은 약 450만 엔, 최하위인 오키나와현은 약 380만 엔에 불과합니다. 지방과 도시에서는 소득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며, 이것이 인구 편중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기노카와시는 과거에는 '복숭아', '팔삭(하사쿠)', '굴', '양파' 등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기노카와시는 전국이나 광역 내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인데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의 평균 연령도 2005년 62세였던 것이 2010년에는 65세, 2015년에는 66세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수익성이 낮음으로 인해 주요 산업이었던 농가가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이 쇠퇴하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을 어떡하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기노카와시에서는 고향 납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향 납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향납세제도는 2023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납세제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외에 기부를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향 납세로 어느 지자체에 50,000엔을 기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000엔을 기부하면 그 30%에 해당하는 15,000엔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48000엔이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50,000엔을 기부하면 답례품 15,000엔에서 자기부담금 2,000엔을 뺀 13,000엔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략 연간 소득의 100분의 1이 기준이 됩니다.

지자체가 답례품을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답례품 금액은 기부 금액의 3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답례품 금액과 배송비, 경비를 다 합쳐서 기부금액의 50% 이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지역산 물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산 물품 기준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첫 번째는 농산물 등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노가와시에서는 복숭아, 감, 딸기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관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대부분 사용해 만든 가공품인 경우입니다. 사진은 관내 멧돼지 고기를 사용해 만든 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관내에서 제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공장에서 만든 냉동 오믈렛입니다.

그것 외에도 관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시내 전철 창고 견학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례품의 30%를과 지역상품 기준을 둘러싸고는 국가와 지방 간에 이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재정난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이즈미사노시는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지자체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기부금을 모아서 국가가 규칙을 엄격하게 만들게 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국가와 이즈미사노시는 재판에서 고향 납세 제도의 규칙에 대해 다투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규칙으로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점점 과열되고 있는 이 고향 납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일본에서 고향 납세로 기부하는 사람은 아직 전국 납세자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직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고향 납세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드디어 1조 엔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고향 납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방에 돈이 모인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는 지자체의 영업 노력으로 세입 예산의 절반을 기부금으로 모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시된 표는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데, 이는 주민 1인당 소득을 Y축으로, 주민 1인당 기부금 수입액을 X축으로 한 표입니다.

소득은 많지만 기부금이 적은 도시지역 지자체에서 소득은 적지만 기부금을 많이 받는 지자체로 재원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가와시의 기부금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향 납세에 힘을 쏟음으로써 지역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고향 납세의 답례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향 납세는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라쿠텐의 고향 납세 화면입니다.

전국적으로 고향 납세의 답례품은 육류와 해산물이 인기가 많습니다.

기노가와시에서는 답례품 중에 70%가 복숭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7~8월경에는 수만 건의 복숭아가 전국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감인데요. 기노가와시는 복숭아 외에도 많은 과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딸기, 키위, 감귤, 무화과 등이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육고기입니다.

고향 납세를 통해 평소에는 구매하기 어려운 고급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듯합니다.

기노카와시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채취할 수 없지만 가리비 등의 해산물도 인기가 많습니다.

답례품에 따라서는 1년에 몇 번씩 나눠서 보내주는 정기배송도 인기인데, 채소처럼 단가가 저렴한 것은 정기배송으로 하면 일 년 내내 다양한 채소를 받아볼 수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이한 답례품으로는 빈집 관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있기도 합니다.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품목은 육류나 해산물, 고급 과일이지만, 복지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쿠키 세트 등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 상품을 지역의 답례품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노카와시에서도 오늘 함께 발표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무기노사토에서 만든 커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자체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잘 팔리는 상품에만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생산자나 복지 사업장과 같이 판매력이 약한 사업자도 최대한 고향 납세 사업자로 편입하여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고향납세제도를 지자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노카와시에는 현재 15개의 고향납세 사이트가 있으며, 각각의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고향납세 운영은 포털사이트 운영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어 지자체 직원들만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광고를 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노카와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항목을 운영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납세 업무를 일부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비용 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중 답례품 대금은 30% 이내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운영대행 수수료, 답례품 배송비를 합해 50% 이내로 해야 합니다.

운영 대행을 담당하는 업체는 전국규모의 사업을 하는 대형 업체가 맡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 지역의 중소 업체가 맡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노카와시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자가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물 생산자만이 아니라 공예품이나 음료를 만드는 업체 등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 사업자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기노카와시의 답례품은 과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노카와시의 강점인 과일을 더욱 늘릴 필요성이 있으며, 재구매율 향상을 위해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품평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외에도 고향 납세 제도를 이용해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 납세에 출품하는 사업자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향 납세가 기노가와시를 비롯한 지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농가를 비롯한 농협이나 중매인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의 사업자들은 수도권의 대형 마켓에 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회가 없습니다. 고향 납세에 참여하면 인터넷 광고와 웹사이트 구축, 배송비도 지자체가 부담해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가 외에도 기노가와시 내에서 폐지를 모아 골판지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평소에는 업무용 BtoB로 골판지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양이의 발톱손질용 골판지를 만들어서 고향 납세의 답례품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 개인이 직접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향의 농민들은 전자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의 경우, 지자체가 위탁한 전문업체가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도 해줍니다. 또한 광고비와 페이지 제작 수수료도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셋째, 지방에서 도시로 판매를 하려면 배송비를 상품에 추가해야 하는 것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 납세라면 배송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비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기노가와시에서 고향 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에 운영 대행업체를 유치하여 신규 고용과 답례품 사업자가 업무 확장을 위한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노가와시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향 납세는 마치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답례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는 지자체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에는 기부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는 All-or-Nothing 방식과 기부금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 All-in 방식이 있는데, 지자체가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All-in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노가와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서는 빈곤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친척이 없는 아동양호시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는 사업에 대한 기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노가와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기노가와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기부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노력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지역사회 SDGs 실천
“무기노사토 사회복지법인의 다각적 사업 운영 사례”

노나카 야스히로 | 무기노사토 법인 사무국차장



韓日国際フォーラム

「日本のSDG s 実践事例から自活事業 活性化連携方策を模索する」

한일국제포럼

「일본의 SDGs 실천사례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다

社会福祉法人一麦会 法人事務局次長 野中康寛
사회복지법인 일맥회(무기노사토) 법인사무국차장 野中 康寛(노나카 야스히로)

地域社会のSDG s 実践 2

社会福祉法人一麦会の事業事例

“障害者の自立のための多角的な事業所の運営と事業所間 のクラスター構築方式を中心に”

지역사회의 SDGs 실천2

사회복지법인 일맥회 활동 사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소 운영과 사업소 간 클러스터 구축 방식을 중심으로”

社会福祉法人一麦会 法人事務局次長 野中康寛
사회복지법인 일맥회(무기노사토) 법인사무국차장 野中 康寛(노나카 야스히로)



사회복지법인 일맥회(무기노사토) 법인사무국차장 野中 康寛(노나카 야스히로)

麦の郷は、「ほっとけやん！（放っておけない）」を理念に1977年6畳一間の無認可共同作業所からスタートし、制度にない資源や受け皿を創り続けてきました。当初はこの地区に作業所を作ることに対して大きな差別的反対運動がありましたが、『地域住民の意識を変えなければこの問題は解決しない！』と職員や当事者一人ひとりが自治会員となり、清掃活動や毎年恒例の花見交流会・夏祭りを催し、地域住民との交流を重ね、顔の見える関係を大切にしてきました。

무기노사토는 「ほっとけやん！（못본척 할 수 없다）」를 이념으로 1977년 6평 남짓한 무허가 공동작업장에서 출발해 제도권에 없는 자원과 접점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장애인 작업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직원과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청소 활동과 매년 꽃놀이 교류회, 여름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거듭하며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現在では地域の理解も得られ、地区社協のスローガンは『福祉のまちづくりは、この西和佐から！』と麦の郷が地区にあることが「地域の宝だ」と語られています。

현재는 지역사회의 이해도 얻게 되어, 이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의 마을만들기는, 여기 서和佐(니시와사)로 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무기노사토가 지역에 있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보배다」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 様々な生活ニーズに関わり、無いものは創らなければ！46年の歴史があり、様々な社会的弱者の困りごとに向き合い、そのニーズに応えるべく、時には制度を利用し・制度をアレンジし、制度を創設し社会資源をつくる。

◆ 包括的で持続可能な社会をめざして、自然と人が共存し循環していく仕組みをつくるべく、幼児期から高齢期までライフステージを通して切れ目のない支援体制を行ってきた。

◆ 麦の郷の創設者のひとりで前理事長の田中秀樹は、「働くだけでは、働き続けられない」と働く場以外の支援に着目し、麦の郷では、相談支援、グループホーム等の生活の場づくりをおこない、さらに、障害者の余暇活動支援、生涯学習支援として、青年学級「すばらしき仲間たち」、つながり文化祭（障害者文化祭）、障害者市民の夏祭り、雪の集い（障害者スキー）、麦の郷みんなで踊り隊（よさこいチーム）などの民間主導で立ち上げを行ってきました。

◆ 다양한 생활의 니즈에 관여하며, 없으면 만들어 온! 46년의 역사가 있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제도를 이용하고・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면서 사회자원을 만들었습니다.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끊임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 무기노사토의 설립자 중 한 명인 田中 秀樹(다나카 히데키) 전 이사장은「일하는 것만으로는, 일이 지속될 수 없다」라며 일터 이외의 지원에도 주목하여 무기노사토에서는 상담 지원, 그룹홈 등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거기다 장애인의 여가활동도 지원과 평생학습 지원으로는 청년교실「멋진 친구들」이 있고, 연결문화제(장애인 문화제), 장애인 시민 여름축제, 눈 모임(장애인 스키), 무기노사토 모두다 댄스팀(요사코이 팀) 등 민간 주도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 麦の郷では、労働の中で自己を認め肯定し、誰しもが活躍でき自分の人生を主体的・活動的に生きるそんな場所づくりをおこない、私たちが関わるのは、狭義の障害者という枠ではなく、生活上の困りごとがある人すべてに関与をもつという想いから、学齢期の不登校の子どもたちの居場所を1996年につくり、その後2009年からひきこもり者の居場所づくりの活動を始めています。

◆ 田中秀樹を中心に麦の郷が多角的な事業所を運営することとなった、ひとつの理由があります。それは、当時（1980年代）障害者の死亡事故補償の算定基準の差別があったことがその理由のひとつです。障害者の命の金銭的価値がこんなに低いのかと愕然とし「このまま、ひとつの事業所だけ内職を続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感じ、内職ではない本格的な仕事おこしと選択できる仕事づくりを行いました。

◆ 무기노사토에서는 노동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누구라도 활약이 가능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우리가 관여하려는 것은 좁은 의미의 장애인이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한다는 생각으로 학령기의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居場所(이바쇼)를 1996년에 만들었고, 그 후 2009년부터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이바쇼를 만드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 田中 秀樹(다나카 히데키)를 중심으로 무기노사토가 다양하게 사업소를 운영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1980년대) 장애인의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기준에 차별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이토록 낮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대로, 한 개의 사업소에서 내근직만 지속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내근직만이 아닌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現在では、

- ① こども支援部（就学前障害児童発達支援センター2カ所）。
- ② 労働支援部（就労継続支援A型、B型事業12カ所 業務内容：クリーニング、印刷事業、ウェス（工業用雑巾）、食品製造（パン、焼き菓子、ゼリー、おかき、納豆、ジュース、ドライフルーツ等）・加工、食品等OEM、農業、清掃等便利屋、カフェ2カ所、アート雑貨製造、販売）、全事業所で185名の障害者が働いています。
- ③ 就労相談支援部（障害者就業生活支援センター（障害者への一般就労支援）、相談支援センター2カ所、地域活動支援センター（居場所活動）2カ所、ひきこもりステーション事業、和歌山県事業農業によるメンタルヘルス推進事業「ANEW」、訪問看護ステーション）
- ④ 生活支援部 生活介護事業（重度障害者支援）、グループホーム9カ所、文部科学省障害者の生涯学習支援事業「ゆめやりたいこと実現センター」
- ⑤ 事務管理部：全職員数は230名です。

현재는,

- ① 아동지원부(취학전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2개소)
- ② 노동지원부(취로지속지원A형, B형 사업 12개소, 업무내용: 청소, 인쇄사업, 텃밭(산업용 걸레), 식품제조(빵, 쿠키, 젤리, 쌀과자, 낫토, 주스, 건과일 등) · 가공, 식품 등 OEM 사업, 농업, 청소 등 용역, 카페 2곳, 아트잡화 제조, 판매)등등 모든 사업장에서 185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 ③ 취로상담지원부(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장애인의 일반취업지원), 상담지원센터 2개소, 지역 활동 지원 센터(이바쇼 활동) 2개소, 히키코모리 스테이션 사업, 和歌山県(와카야마현)사업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멘탈 헬스 추진사업「ANEW」, 방문간호 스테이션)
- ④ 생활지원부 생활개호사업(중증장애인 지원), 그룹홈 9개소, 문부과학성 장애인 생애학습지원사업「꿈꾸는대로 실현센터」
- ⑤ 사업관리부 : 전 직원수는 230명입니다.



◆ 2003年に日本の障害支援制度が大きく変わりました。それは、「措置」という形で国の責任をもって行われていた福祉が、事業所間で競争をおこない競争に勝つ事業者だけが生き残り、また、福祉は個人の責任において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考え方である「社会福祉基礎構造改革」がなされました。その影響を受け、事業費も大幅に削減され法人でも給料昇給ストップ、管理職手当のカットなどの対策をおこない、「このまま制度に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の思いで、小規模ながら様々な事業所を立ち上げ、そこで着目したのが食品製造加工です。地元大手スーパーマーケットの商品開発コーディネーターを一妻会で雇用し、様々な食品製造、加工をおこない6次産業化を目指しました。

◆ 2003년에 일본의 장애지원제도는 크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조치」라는 형태로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던 복지가 사업소 간 경쟁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는 사업자만이 살아남고, 복지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의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 사업비도 대폭 삭감되었고, 이에 대해 법인에서는 급여 인상 중단, 관리직 수당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대로 제도에 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소규모이지만 다양한 사업소를 설립하는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목한 것이 식품 제조 가공이었습니다. 지역 대형마트의 상품개발 코디네이터를 영입하여 다양한 식품 제조, 가공을 통해 6차 산업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パンや焼き菓子は、夏場に売り上げが激減することの対策として、夏に売れる商品の開発、県内消費ワーストワンの和歌山県だからこそ潜在的消費者がいると考え製造を始めた納豆、民主的農協組合で廃棄料を支払い年間何トンもの廃棄されるフルーツや野菜の一次加工やジュースづくり、農家が小ロットでおこなえる食品加工やOEM等の委託加工。現在の就労支援事業の売上高は約3億円となります。

◆そして次第にA事業所で1次加工したものをB事業所で製品にして、Cカフェで販売する。Cカフェで焙煎し抽出したコーヒーをA事業所でコーヒーゼリーにする。その中で、お互いに、このような商品が欲しい等の商品提案をおこない事業を拡げてきました。作業のなかで、今までの受け身的であった障害者自身が、自信をもって提供できる製品をつくることでその人自身の自信の回復と自信の誇りの回復となりました。

◆しかし、まだまだ、麦の郷に関わる障害者の給与保障ができてはならず、年間の法人全体の売上高が3億円ほどで工賃支払総額は年間約1億円です。月平均工賃45,000円です。

◆ 빵과 제과류는 여름에 매출이 급감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여름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단행하여, 주목한 것이 낫토였는데 와카야마현은 낫토 소비가 전국 최저였기에 오히려 잠재적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조를 시작하였고, 지역의 농민조합에서 폐기료를 지불하며 연간 수 톤씩 버리던 못난이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여 1차 가공과 주스 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농가가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식품 가공이나 OEM 등의 위탁 가공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취로지원사업의 매출액은 약 3억엔에 달할 정도입니다.

◆ 그리고 순차적으로 A사업소에서 1차 가공을 한 것을 다시 B사업소에서 제품화하고, 이를 C 카페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C카페에서 로스팅해 추출한 커피는 다시 A사업소에서 커피 젤리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상품 제안을 하며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아직 무기노사토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급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인데, 연간 법인 전체 매출액이 약 3억엔 정도이고, 이 중에 인건비 지급 총액은 연간 1억엔 정도입니다. 이를 월 평균 임금으로 하면은 4만5천엔 정도입니다.

◆ 新自由主義、市場主義の中で、障害者が働く場である作業所は、大きなジレンマを抱えています。障害者を支援する作業は、もちろん障害者の経済的自立に向けて日々奮闘していますが、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福祉の仕事は幸せを二重に重ねるものなのだよ」と先輩実践者から教えてもらったことがあります。「福」は幸せをもたらすという漢字の意味であり、「祉」も同じく恵みであり幸せを意味する言葉なのです。二重の幸せを保障することが福祉の本来の目的であり福祉が福祉たる所以（ゆえん）なのです。しかし、障害者福祉に市場原理が導入され訓練し一般就労を目指すための障害者福祉となり、いかに一般就労に適應させてゆくかが福祉施設としての評価基準（一般企業への就職や工賃をたくさん払った事業所がたくさんの運営費をもらえる）となっています。そして今後さらにこの方向性は加速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ます。

◆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속에서 장애인들의 일터인 사업소는 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지쪽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을 두배로 쌓는 일이에요」라고 선배 실무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福」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한자의 의미인데다, 「祉」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의 본래 목적이고 복지가 복지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장애인을 훈련시키고 일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가 되었고, 얼마나 일반 취업시장에 잘 적응시키느냐가 복지시설로서의 평가기준(일반기업에 취업하거나 인건비를 많이 지급한 사업장이 운영비를 많이 받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その様な中で悪徳事業者も現れています。就労継続支援B型事業所では障害者一人につき1日約8000円（月20日通所で16万）の事業費が国から支給されます。そのうち1日2500円（月20日通所5万）仕事をしなくても障害当事者に工賃として支払う、残りの11万/月（15人障害者利用×11万＝165万/月）をその事業所が独り占めする。本来ならば専門的職員や複数の職員を配置する必要があるが、何の専門性もない見守りと監視をするだけの職員を配置し、自分たちの儲けを優先する企業体の作業所も増えています。

◆ 이런 가운데 악덕 사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취로지속지원 B형 사업소에는 장애인 한 명당 1일 약 8,000엔(월 20일 출근 시 16만엔)의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지급됩니다. 그 중에 하루 2,500엔(월 20일 출근 5만엔)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11만엔/월(장애인 15명 이용×11만엔=165만엔/월)을 해당 사업소가 독차지합니다. 원래는 전문직 직원이나 여러 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감시와 감독만 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자신들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업형 작업소도 늘고 있습니다.



◆ かつての共同作業所は、歌と笑いと語り合いに満ち溢れた世界でしたが、現在は静まりかえった作業室の中で淡々と作業を行い、そのなかで労働能力がある障害者だけが、一般就労へ向かうような場になっているという作業所も少なくありません。就労継続支援B型や就労移行支援事業所等で訓練を行い、一般就労をおこなうなかで最低賃金が守られ収入は大幅にあがり、衣食住働の保証がされ豊かになることはいうまでもありませんが、それは、二重の幸せを保障する本来の福祉の姿ではありません。

◆ ひとつの目の幸せが、衣食住働いわゆる生きることを保障することだとすれば、二重目の幸せは、その人がその人らしい役割や存在意義を十分に発揮できることを保障し生き生きできる場所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ぞれがもつ生きる力を最大限発揮し、生き生きできる場で、歌い、笑い、踊り、語り合う中で総合的な発達保障がなされ、自分自身の人生を完成させてゆきます。

◆ 과거 공동작업장은 노래와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세상이었지만, 현재는 조용한 작업실 안에서 묵묵히 작업을 하고, 그 속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만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된 작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취로지속지원B형이나 취로이행지원사업소 등에서 훈련을 받고 일반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소득이 크게 올라 의식주가 보장되어 풍요로워지는 것은 말할 필요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이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본래의 복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 한 가지의 행복이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행복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역할과 존재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활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 숨 쉬는 장에서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 強い国づくりとして生まれてきた競争主義、個人主義という価値観は、強者と弱者の格差をつくり、強くないもの、生産性のないものを政策的に排除してきました。さらに障害がある人やひきこもり者の根源的な苦しみや自己否定観念は、そのような社会の構造から意識的につくられ生みだされてきたものです。

◆ 「既存のモノ」「普通」に適應させるのではなく、地域社会の中で様々な人と関わり、多様な生き方や価値観があることを知り、自分らしい生き方を模索していくこと。そして、行きつ戻りつ揺れ動き、自己矛盾や葛藤、悩みながら成長発達していくためのプロセスが大切でSDGsの理念そのものだと思います。

◆ 강한 나라 만들기로 탄생한 경쟁주의, 개인주의라는 가치는 강자와 약자의 격차를 만들고, 강하지 않은 것, 생산성이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거기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은둔형 외톨이들의 근원적인 고통이나 자기부정 관념은 그런 사회 구조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양산되어 온 것입니다.

◆ 「기존의 것」, 「보통」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 저리 흔들리고, 자기 모순과 갈등, 고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SDGs의 이념이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 障害者問題 — それはまさに「人間の生命と尊厳が、その社会において、どれだけ大切にされているかを問う試金石であり、社会の人間に対する価値観を根底から変革・発展させるだけの重さをもつ社会的・普遍的問題（1974年障害者と人権 清水寛）」一番立ち遅れているともいえる障害者問題を見ることによって、一部の人のに向けたSDGsではなく、本当のSDGsの到達がわかるのでは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して、競争や比較で人間の価値が決められてしまう社会ではなく、障害がある人が社会の中で、生き活きと暮らすことができる社会こそSDGsが目指す社会だと思います。

◆ 장애인 문제 -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지를 묻는 시금석이며, 사회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발전시킬 만큼의 무게를 지닌 사회적·보편적 문제(1974년 장애인과 인권 시미즈 히로시)」입니다. 제일 뒤쳐져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SDGs가 아닌 진정한 SDGs의 도달점을 알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경쟁과 비교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고 마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 안에서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SDGs가 지향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麦の郷では、制度に抗いながら制度を有効活用し事業を運営してきました。そして事業を職員ひとりひとりが意識をもって創り上げることが麦の郷のマインドです。私が入職時に先輩実践者から「共同作業所職員は、落ちていた石を見ても、それが障害者の仕事に繋がらないかと、常に注意深く物事を見る必要がある」と教えられました。先日、若手の職員がプライベートで自分の車の車検に行った際に、その自動車メーカー（スズキ自販）が行う「SDGsチャレンジプロジェクト」の話を聞き、そのプロジェクトのテーマが、「すべての人に健康と福祉を」だということを聞き、何か一緒にできることはないかと提案し、その結果、ひきこもり者が作る創カフェのコーヒーを大量注文して頂くことになりました。「落ちていた石を見ても」というその理念が今の若いスタッフにも継承されていることを実感し、今後も麦の郷の理念を全ての職員と共有し実践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 무기노사토에서는 제도에 저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를 잘 활용하며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기노사토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선배 실무자가 「공동작업장 직원은 떨어지는 돌맹이를 보고도 그것이 장애인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젊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차를 점검하러 갔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사(스즈키)에서 진행하는 「SDGs 챌린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프로젝트의 주제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복지를」이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제안을 했고, 그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일하고 있는 創(하지메) 카페의 커피를 대량 주문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돌맹이를 보고도」라는 그 이념이 지금의 젊은 직원들에게도 잘 계승되고 있음을 실감하며, 앞으로도 무기노사토의 이념을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韓日国際フォーラム

「日本のSDG s 実践事例から自活事業 活性化連携方策を模索する」

한일국제포럼

「일본의 SDGs 실천사례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다」

社会福祉法人一麦会 法人事務局次長 野中康寛
사회복지법인 일맥회(무기노사토) 법인사무국차장 野中 康寛(노나카 야스히로)

한일국제포럼

「일본의 SDGs 실천사례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다」

지역사회의 SDGs 실천2. 사회복지법인 일맥회 활동 사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소 운영과 사업소 간 클러스터 구축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일맥회(무기노사토) · 법인사무국장 野中 康寛(노나카 야스히로)

무기노사토는 「ほっとけやん! (못본척 할 수 없다)」를 이념으로 1977년 6평 남짓한 무허가 공동작업장에서 출발해 제도권에 없는 자원과 점점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장애인 작업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직원과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청소 활동과 매년 꽃놀이 교류회, 여름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거듭하며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의 이해도 얻게 되어, 이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복지의 마을만들기는, 여기 西和佐(니시와사)로 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무기노사토가 지역에 있는 것이야말로「지역의 보배다」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 ◆ 다양한 생활의 니즈에 관여하며, 없으면 만들어 온! 46년의 역사가 있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제도를 이용하고 ·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면서 사회자원을 만들었습니다.
-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무기노사토의 설립자 중 한 명인 田中 秀樹(다나카 히데키) 전 이사장은 「일하는 것만으로는, 일이 지속될 수 없다」라며 일터 이외의 지원에도 주목하여 무기노사토에서는 상담 지원, 그룹홈 등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거기다 장애인의 여가활동도 지원과 평생학습 지원으로는 청년교실 「멋진 친구들」이 있고, 연결문화제(장애인 문화제), 장애인 시민 여름축제, 눈 모임(장애인 스키), 무기노사토 모두다 댄스팀(요사코이 팀) 등 민간 주도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무기노사토에서는 노동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누구라도 활약이 가능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우리가 관여하려는 것은 좁은 의미의 장애인이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한다는 생각으로 학령기의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居場所(이바쇼)를 1996년에 만들었고, 그 후 2009년부터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이바쇼를 만드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田中 秀樹(다나카 히데키)를 중심으로 무기노사토가 다양하게 사업소를 운영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1980년대) 장애인의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기준에 차별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이토록 낮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대로, 한 개의 사업소에서 내근직만 지속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내근직만이 아닌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일본의 장애지원제도는 크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조치」라는 형태로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던 복지가 사업소 간 경쟁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는 사업자만이 살아남고, 복지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의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 사업비도 대폭 삭감되었고, 이에 대해 법인에서는 급여 인상 중단, 관리직 수당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이대로 제도에 질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소규모이지만 다양한 사업소를 설립하는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목한 것이 식품 제조 가공이었습니다. 지역 대형마트의 상품개발 코디네이터를 영입하여 다양한 식품 제조, 가공을 통해 6차 산업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빵과 제과류는 여름에 매출이 급감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여름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단행하여, 주목한 것이 낫토였는데 와카야마현은 낫토 소비가 전국 최저였기에 오히려 잠재적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조를 시작하였고, 지역의 농민조합에서 폐기료를 지불하며 연간 수 톤씩 버리던 못난이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여 1차 가공과 주스 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농가가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식품 가공이나 OEM 등의 위탁 가공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취로지원사업의 매출액은 약 3억엔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A사업소에서 1차 가공을 한 것을 다시 B사업소에서 제품화하고, 이를 C 카페에서 판매 하도 합니다. 이번에는 C카페에서 로스팅해 추출한 커피는 다시 A사업소에서 커피 젤리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상품 제안을 하며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기노사토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급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인데, 연간 법인 전체 매출액이 약 3억엔 정도이고, 이 중에 인건비 지급 총액은 연간 1억엔 정도입니다. 이를 월 평균 임금으로 하면은 4만5천엔 정도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속에서 장애인들의 일터인 사업소는 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지쪽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을 두배로 쌓는 일이에요」라고 선배 실무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福」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한자의 의미인데다, 「祉」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의 본래 목적이고 복지가 복지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장애인을 훈련시키고 일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가 되었고, 얼마나 일반 취업시장에 잘 적응시키느냐가 복지시설로서의 평가기준(일반기업에 취업하거나 인건비를 많이 지급한 사업장이 운영비를 많이 받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악덕 사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취로지속지원 B형 사업소에는 장애인 한 명당 1일 약 8,000엔(월 20일 출근 시 16만엔)의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지급됩니다. 그 중에 하루 2,500엔(월 20일 출근 5만엔)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11만엔/월(장애인 15명 이용×11만엔=165만엔/월)을 해당 사업소가 독차지합니다. 원래는 전문직 직원이나 여러 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감시와 감독만 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자신들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업형 작업소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 공동작업장은 노래와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세상이었지만, 현재는 조용한 작업실 안에서 묵묵히 작업을 하고, 그 속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만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된 작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취로지속지원B형이나 취로이행지원사업소 등에서 훈련을 받고 일반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소득이 크게 올라 의식주가 보장되어 풍요로워지는 것은 말할 필요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이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본래의 복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의 행복이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행복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역할과 존재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활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 숨 쉬는 장에서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만들기로 탄생한 경쟁주의, 개인주의라는 가치는 강자와 약자의 격차를 만들고, 강하지 않은 것, 생산성이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거기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은둔형 외톨이들의 근원적인 고통이나 자기부정 관념은 그런 사회 구조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양산되어 온 것입니다.

「기존의 것」, 「보통」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 저리 흔들리고, 자기 모순과 갈등, 고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SDGs의 이념이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 만들기로 탄생한 경쟁주의, 개인주의라는 가치는 강자와 약자의 격차를 만들고, 강하지 않은 것, 생산성이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거기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은둔형 외톨이들의 근원적인 고통이나 자기부정 관념은 그런 사회 구조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양산되어 온 것입니다.

「기존의 것」, 「보통」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 저리 흔들리고, 자기 모순과 갈등, 고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SDGs의 이념이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제 -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지를 묻는 시금석이며, 사회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발전시킬 만큼의 무게를 지닌 사회적·보편적 문제(1974년 장애인과 인권 시미즈 히로시)」입니다. 제일 뒤쳐져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SDGs가 아닌 진정한 SDGs의 도달점을 알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경쟁과 비교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고 마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 안에서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SDGs가 지향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노사토에서는 제도에 저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를 잘 활용하며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기노사토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선배 실무자가 「공동작업장 직원은 떨어지는 돌맹이를 보고도 그것이 장애인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젊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차를 점검하러 갔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사(스즈키)에서 진행하는 「SDGs 챌린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프로젝트의 주제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복지를」이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제안을 했고, 그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일하고 있는 創(하지메) 카페의 커피를 대량 주문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돌맹이를 보고도」라는 그 이념이 지금의 젊은 직원들에게도 잘 계승되고 있음을 실감하며, 앞으로도 무기노사토의 이념을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업과 민간의 SDGs, ESG 관련 일자리 개발
“경기도의 ESG 파트너십 추진 사례 중심”

김민석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SDGs, ESG 기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경기도 ESG 파트너십 추진 사례

16th October 2023

김민석 (Ph.D)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 사업본부장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Gyeonggi Social Investment Center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주요 역할

임팩트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자활조직 포함)

협동조합 성장지원

지역 균형 특화발전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회적 가치 확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활동 활성화

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ESG 파트너십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ESG 마켓플레이스

공공기관 ESG 컨설팅

혼합금융 투자

경기소셜임팩트 펀드 조성

R&D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회가치 측정·평가 관리

정책연구

정책연구, 이슈브리프, 현장 밀착 연구사업

경기도 ESG 전략 수립

연구확산사업 (전문가 정책세미나, 정책네트워킹)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ESG 파트너십 주요 사업

주요사업

1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

- ☐ 사회환경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솔루션 테아발' 운영

2 사회적경제조직 ESG마켓 플레이스

- ☐ 대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한 Pop-up store
- ☐ '경기 ESG festa'

3 공공기관 ESG 컨설팅

- ☐ 일반적인 ESG 컨설팅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방안 제시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 경기도 지역이 당면한 사회환경 난제*에 관한 문제 정의 및 공동 참여 방식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력 극대화

*①안구위키 극복 ②기후변화 대응 ③지역활성화 ④사회적약자배려 ⑤정보격차 해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2개 조직 이상 공동 참여)
*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 참여가 아닌 2개 조직 이상 공동 참여 필수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기너 솔루션	사회환경 난제 해결을 위해 실증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12팀
스케일업 솔루션	사회환경 난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확대 실행 및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6팀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경기 ESG festa

사업목적

- 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ESG 상생협력의 장 마련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	기업 / 공공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민			
장소	경기도 소재 장소			
내용	① 사회적경제조직 소개 ② ESG/난제해결 솔루션 사례공유 ③ 전문가 포럼 등			
추진 체계	페스티벌 추진 자문단 구성	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사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섭외 프로그램 구성 등	페스티벌 행사 진행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ESG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공공기관별 ESG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매칭** (컨설팅 및 사업협력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공공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공공기관 ESG 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ESG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구분	예시 : (경기도 5대 사회환경 난제 중 사회적약자배려 관련)
공공기관 협력 프로젝트 참여	고령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돌봄,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참여
맞춤형 ESG 컨설팅 제공	참여 조직의 사회적약자 배려 관련 ESG 기반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고도화 방안 컨설팅 제공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기업의 ESG 경영과 함께하는 자활사업 활성화 사례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 ?

- 정부: 친환경 경제 생태계 구축
- 기업: ESG 경영 실천, 자원 절약, 자원순환...
- 자활: 안정적인 일자리, 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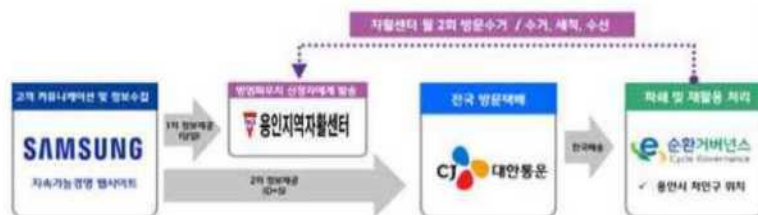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지정(117-1)
용인지역자활센터
YCMJ21 Self-Sufficiency Center

(출처: 당근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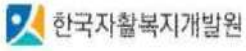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기업의 ESG 경영과 함께하는 자활사업 활성화 사례



연번	참여기관	주요 역할
1	삼성전자	폐휴대폰 반납 소비자 대상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폐휴대폰 기부자 정보 수령 및 전달(→CJ대한통운)
2	CJ대한통운	택배 기반 폐휴대폰 수거 등 물류(SCM) 서비스 제공
3	e순환거버넌스	수거 폐휴대폰 파쇄 & 전처리, 재활용
4	경기도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용인지역자활센터)	폐휴대폰 수거 다회용박스 운영 관리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Copyright 2023. Minseok Kim. All rights reserved.



● ● ● ● ●
감 사 합 니 다





SDGs, ESG 연계 자활사업 추진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공모 우수사례 발표”

박 향 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K-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사람 · 환경 · 일자리를 지키는』 자활 다회용기 순환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3.10.16(월) 일자리사업본부 박향희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소개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추진내용
4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5	평가 및 향후 방향
6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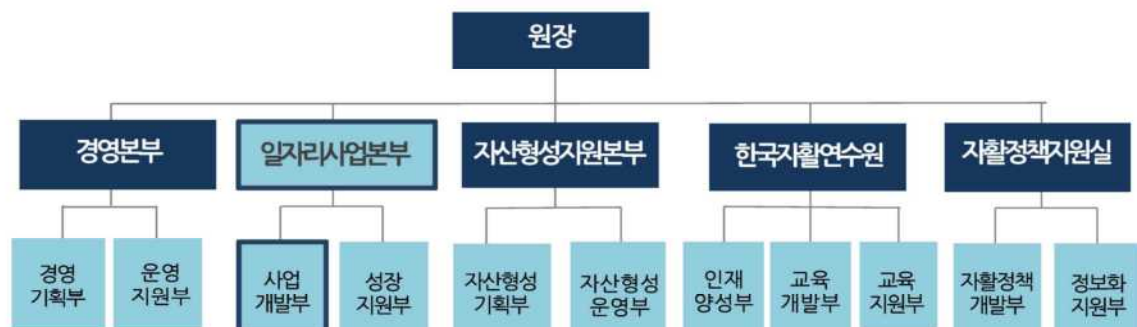


설립 목적

구 분	내 용
설립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이2
주요업무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조사·연구 및 홍보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조직도



- 본 사업 추진 조직 : 일자리사업본부-사업개발부

6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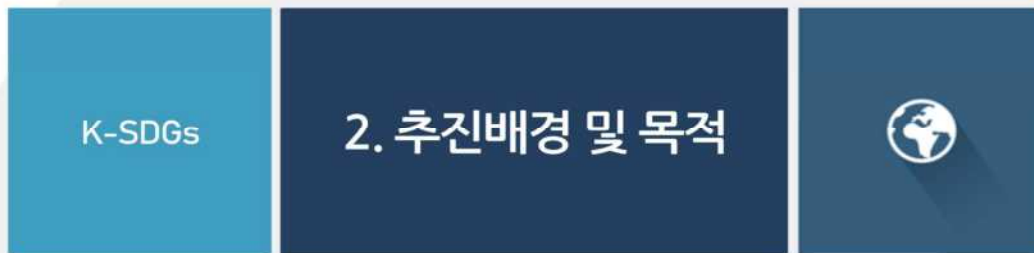
(08.7) 중앙자활센터 설립 성과관리형 사업(희망리본) 실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시작	08~10
11~13	전국자활기업 제1호 설립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48개 시군구) 자활사례관리 사업(60개소) 실시 근로능력판정업무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위탁 내일키움통장 도입
희망키움통장제 도입(차상위계층확대) 한국자활연수원 설립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드림셋) 시범사업 시작 자활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14~16
17~19	기업연계형 자활사업 실시 예비 자활기업 및 시간제 자활근로 시범사업 실시 청년자활근로 시범사업 실시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 수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19.7)
공공기관 지정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수행	20

7

시설현황

구분	현황
본원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청빌딩 9·10층 9층 : 경영본부, 자활정책지원실 10층 : 일자리사업본부, 자산형성지원본부
한국자활연수원	- 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43 - 대지면적 29,800㎡, 건축면적 2,484㎡, 연면적 9,996㎡ - 강의실 : 8실(대2, 중5, 소2), 대강당 1실, 전산교육실 1실, 회의실 2실 - 생활관 : 136실 (2인실 126개, 1인실 6개, 다인실 2개, 장애인실 2개) - 직무실습교육장 (신축, 21년 1월 완공)

8



자활 다회용기 세척사업 키워드! 3·3·3



*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 경제(번영), 사회(사람), 환경(지구환경), 평화, 지구촌 협력(파트너십) 등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를 2030 국가비전으로 설정함

1 사회문제

“1회용품 쓰레기 증가 문제, 다회용기 세척사업으로 해결”

카페, 장례식장, 공공기관, 행사장, 배달전문 음식점 등 B2B, B2G 수요층 타겟으로
1회용기 →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쓰레기 발생량
43% 증가

1억 4천만 톤 (2010)
→ 2억 톤 (2020)



1회용 컵 사용량
662% 증가

4억 2천만개 (2007) →
코로나 이후 32억개 (2021)



장례식장 1회용 접시
국내 20% 사용

연간 3억 7,000만개,
2,300t 발생

11

1 사회문제

“경기침체로 빈곤층 증가, 자활 일자리 개발로 사회안전망 강화”

중앙 단위 신규 일자리 모델인 ‘다회용기 세척사업’ 개발 및 보급하여 빈곤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강화

수급자

- 맞춤형 급여(‘15년), 근로·사업 소득공제(‘20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7~‘22년) 등 제도 개편에 따라
전체 수급자 수 70% 대폭 증가(‘12년 대비 ‘21년)
- * (‘12년) 139만명 → (‘15년) 165만명 → (‘18년) 174만명 → (‘21년) 236만명

수급률

- 전체 수급자 및 차상위자* 증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자활 참여 대상도 동반 증가
- 전체 인구의 생계급여 수급률 ‘16년 2.5% → ‘23년 3.1%

인프라

- 급증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유입에 따른
개별 지역자활센터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전문성 부족으로 자활 일자리 확대에 한계
- 참여자 개인의 자활지원계획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저조

12



추진배경

“수급자 등 빈곤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혁신 필요”

1

자활사업 아이템 혁신 요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대한 오해
→ ‘부랑인’ 지원, 종이가방 끈을 끼우는 공동부업장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
→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자활성과 평가절하
-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급증
→ 이들을 배치할 적절한 사업이 없어 대부분 공동부업장에 배치되는 악순환 지속
- 청소 등 소규모 노동집약적 영세업종 중심이었던 기존 자활근로사업을 대체할 자활 일자리 개발에 대한 전국 지역자활센터 요구 증대

2

자활사업 참여자 위상 전환 필요

- 복지 수혜자 → 지역사회 구성원
- 소극적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탄소중립* 등 새로운 자활 일자리모델 개발 요구 확산
- 국정목표 4(약속16.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국정과제 89(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13



추진배경

“친환경·탄소중립 자활 일자리 개발 본격 추진”

1

현장 요구 반영한 자활 일자리 적극 발굴

- 대국민 공모를 통한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발굴(2021년)
→ ‘다화용기 세척 사업’ 대상 수상
- 자활 일자리 집중육성사업으로 ‘자활 다화용기 세척사업’ 추진(2022년)

2

우리기관의 비전·미션·전략목표에 반영 및 공시

- 비전 : 취약계층의 포용적 자활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
- 미션 : 사람중심의 일·복지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전략목표 중 ‘ESG기반 조직운영체계 구축’ 신규 포함
- 세부추진과제 중 ‘자활사업 탄소중립 환경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신규 포함

	정부정책 및 대외환경	기관 특성 및 여건
환경분석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국정목표 4 - 약속16)	▪ 자활사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역량 보유 ▪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지원 공공기관
시사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관 업무 연계 활동 및 대내외 확산 필요	
추진목표	자활사업 탄소중립 환경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방향	환경친화적 자활사업 조성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추진과제	▪ 친환경 자활사업 개발 ▪ 친환경 인프라 조성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실현 ▪ 에너지 순환 문화 확산

14

3 목적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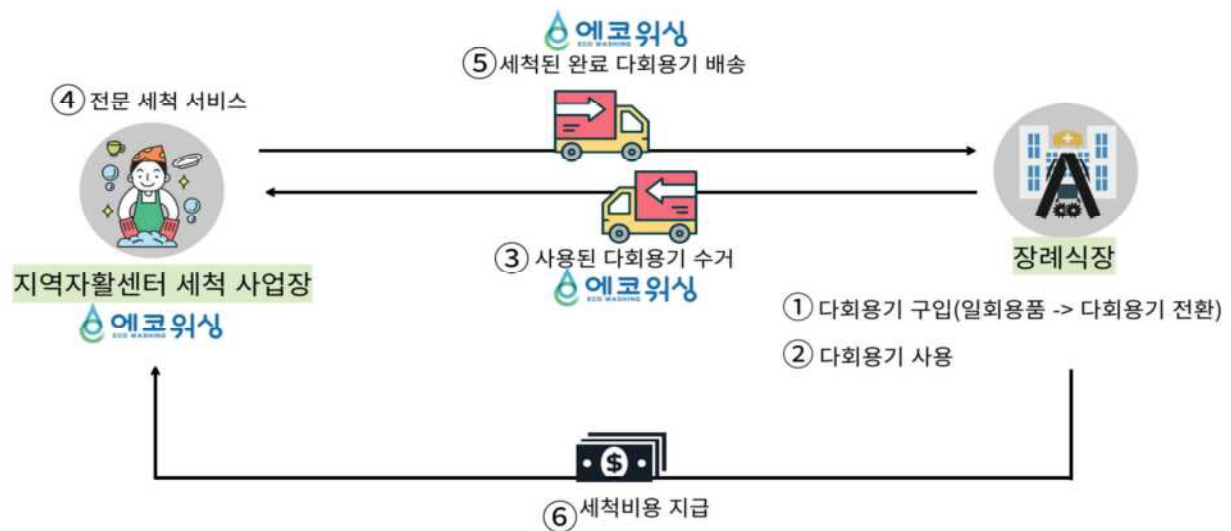


15



1 사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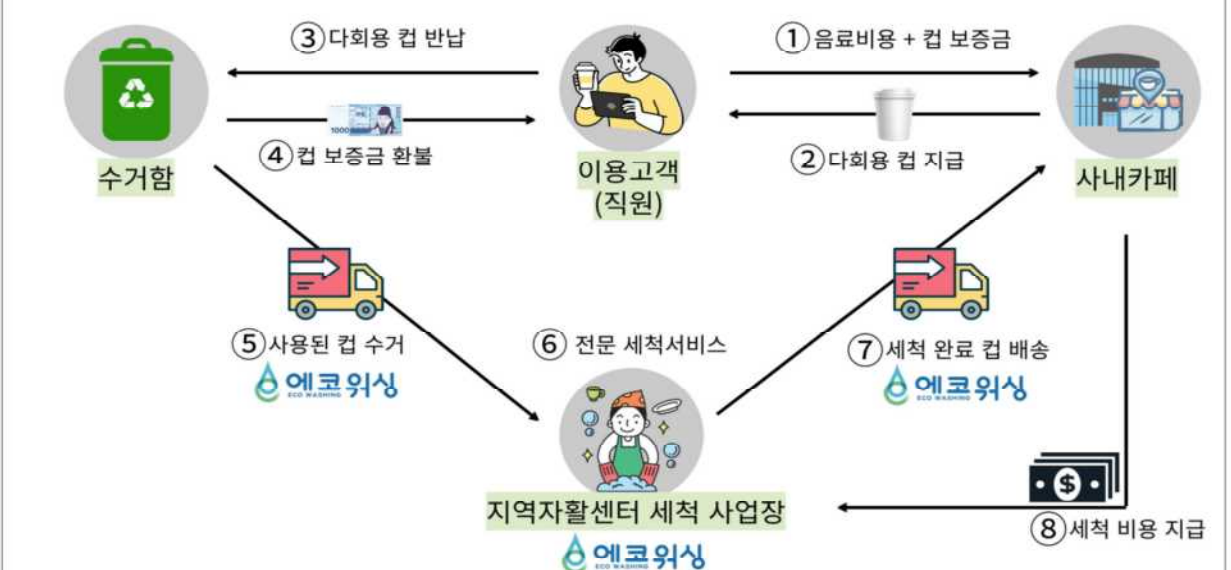
장례식장



17

1 사업 모델

기업 / 공공기관 사내 카페



18

1 사업 모델

“B2B, B2G 중심으로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



장례식장



영화관



행사장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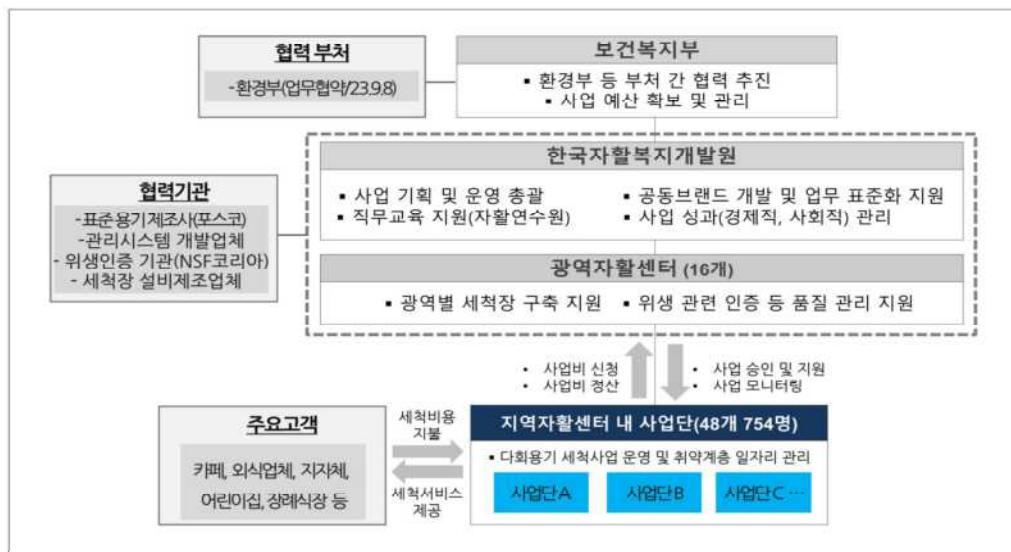
카페



배달음식점

2 추진주체별 역할

“자활 핵심 3자 인프라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체계적 사업 추진, 역할 명확화”



 3 추진과정

Key

- 자활 핵심 3자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전국 광역자활센터(16개소) 사업 네트워크 구축
- 촘촘한 네트워크 통해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정기 모니터링 및 피드백

자활 추진체계

중앙-광역-지역
탄탄한 3자 협력체계 구축

- **역할 명확화**
 - 중앙 : 총괄기획, 예산 지원
 - 광역 : 사업단 구축 지원, 모니터링
 - 지역 : 세척 사업단 운영
- **중앙-광역 간 사업활성화 네트워크**
 - 공동브랜드 개발 합의
 - 표준매뉴얼 공동 개발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실무자-참여자 역량 강화
및 사업 성과 모니터링

- 실무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 SK행복커넥트 에코제주센터
- 사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세척사업단 현황 공유, 성과 취합
- 사업단 참여자 교육과정 개발 논의
- 전국 사업단 실무자 네트워크 발족
- 참여자 교육용 동영상 제작 예정

3 추진과정

“광역자활센터 주도,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업 활성화”

④ 충남,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연계

✓ 장례식장 제공 다화용기

- **재정형상**



- **어류 양식생산 현황**
 - 전년도 실적 / 중부지방연회(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
 - 최근 최초로 공중보건에서 대외활동이 사업 실시 → '21년 4-12월 : 대외활동이 사용 후 58개기 배출량 평균 57.2% 감소
- **모집 현황**
 - 총합 연간 양식생산(14개소) : 2개소(서산 요양병원/청정양식장) / 농업 양식생산(4개소) : 확립 + 6개소 추가모집 예정
- **모집 목표 및 규모**
 - 예향 목표 : 10개소.



- 아산, 서산, 청양지역자활센터 식기세척사업단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사업 추진
- * 공주, 천안, 홍성, 태안군의료원 등

+ 경기, 경기도 연계



- 수원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세척사업단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카페 입점
- *도의회-경기광역자활센터 등 업무협약

4 추진방법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3년 로드맵’ 전략 수립에 따라 사업 수행 ”



23

4 추진방법

Key

- 표준업무매뉴얼 개발로 서비스 품질 관리 최우선 고려
 - 본 사업 선도지역인 경기, 충남 지역 사업단 실제 프로세스 조사 및 정비하여 매뉴얼화
 - 사업준비과정, 직무 프로세스, 안전 및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체크리스트 등 구성



24



추진방법

Key

- 사업 특성 상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 NSF 위생 점검 지원 : 위생점검 비용 지원 - ATP 오염도 측정 필수 : 장비 구입비 지원

NSF 위생점검

에코워싱 전국 모든 세척장은 NSF KOREA를 통한 정기 위생점검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위생을 유지합니다.

*세척사업장 위생 및 세척된 식기에 대한 시험검사 진행

NSF란?

NSF는 1944년 설립된 미국의 인증기관으로 보건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격개발, 안정성 검토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TP 오염도 측정

에코워싱은 HACCP인증에 사용되는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상태를 점검합니다.

식품위생 안전기준(200RLU 이하)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5



추진방법

Key

- 용기 표준화 추진으로 대량 생산 가능, 원가 절감으로 경제성 개선
 - 도시락 다회용기 개발 및 제작 완료, 서울시 ‘돌봄SOS 식시지원서비스*’에 도시락 사용 확경
 - * 서울시 운영 연간 62만식 중 약24만식 자활 도시락사업단이 위탁
 - 광진지역자활센터 등 6개 자활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이 도시락 제조, 세척 및 배송 등 통합 역할
- 향후 용기 뿐 아니라 컵 회수기계, 유니폼, 패키징 등도 표준화 작업 추진 계획



가로 33.5cm * 세로25.8cm * 높이 3cm



26



주요특징

“사업 수요자 측면에서의 이점”

1

EVERYWHERE

중앙(개발원)-광역(16개 광역자활센터)-지역(250개 지역자활센터) 등
충충한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제한 없이 사업 추진 가능**

2

일거양득

탄소중립 기여 뿐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공영역 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 ESG 실천에 도움이 됨

3

PARTNERSHIP

자활-공공 및 민간 연계사업 다수 진행하여 **원활한파트너십 기반 사업 운영 가능**
*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GS리테일 등 연계 ** 2,588명 **일자리창출** (22년)
** 친환경 출장세차, 청소-소독방역, GS25 편의점, 국수나무(외식업) 등

4

통합 지원 가능

다회용기 세척사업 뿐 아니라 방문돌봄-도시락제조-배송-세척 등 **이종간 협업 가능**

27

K-SDGs

4.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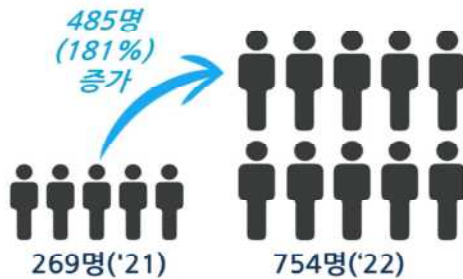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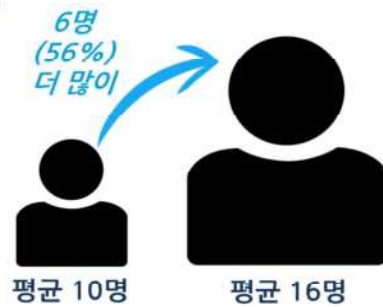
■1번.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빈곤층 자활 일자리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전년대비 181% 증가('22년)
- 자활근로사업단 개소 당 평균 일자리 수보다 56% 더 많이 고용

전체수



개소당



29

1 K-SDGs 기여

Key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다회용기 세척으로 1회용품(도시락, 접시, 컵) 3,484,116개 절감



■13번. 기후변화와 대응

- 1회용품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170,721kgCO2eq 감량

성과



효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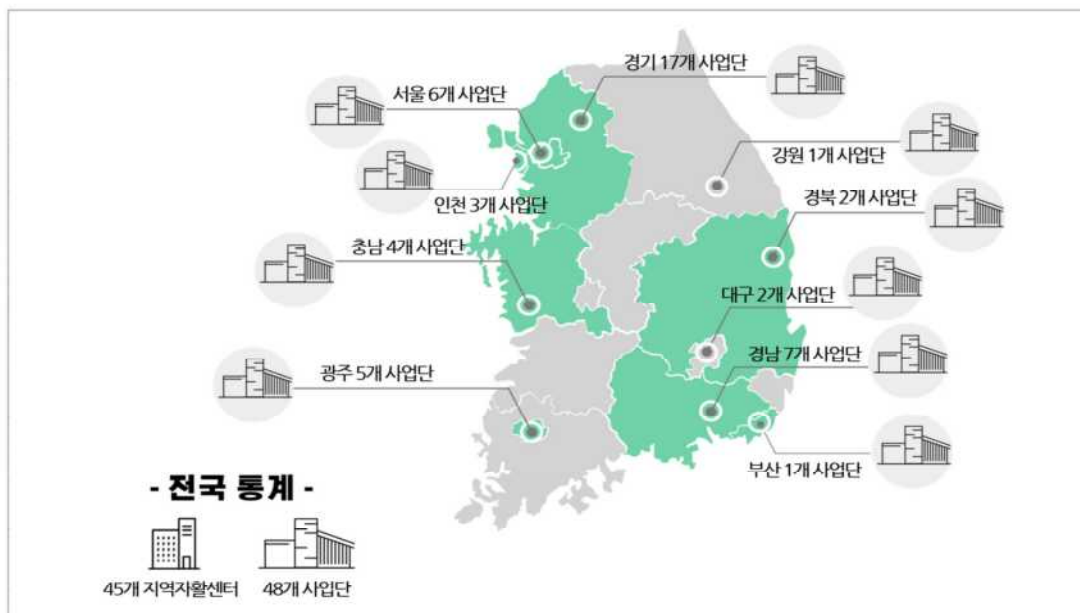
2 사례의 파급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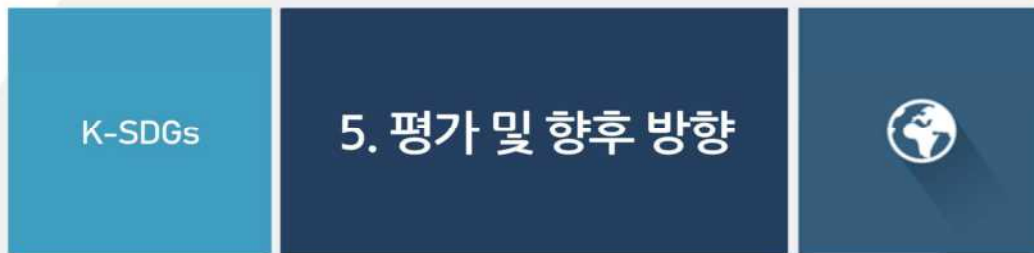
31

2 사례의 파급력

“세척사업단 전국 분포도(2022년 12월 기준)”



32



1 평가

“사례 전반 평가”



2 평가

“부처간 협력, 제도 등 반영 추진”

정부

- 복지부-환경부-포스코 3자 MOU 체결
* 2023년 9월 8일(금)
- 환경부 정책사업 자활영역 선도적 참여 기대

기본계획

- 복지부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4~26) 내 지속 추진 계획 포함
* '자활사업 모델 개발·확산' 예시로 다화용기세척사업단 명시

지자체

- 서울시 '돌봄 SOS 식사 서비스' 외 다양한 분야에 다화용기 사용 추진 검토
- 우리기관-서울시-서울광역시 자활센터 MOU 체결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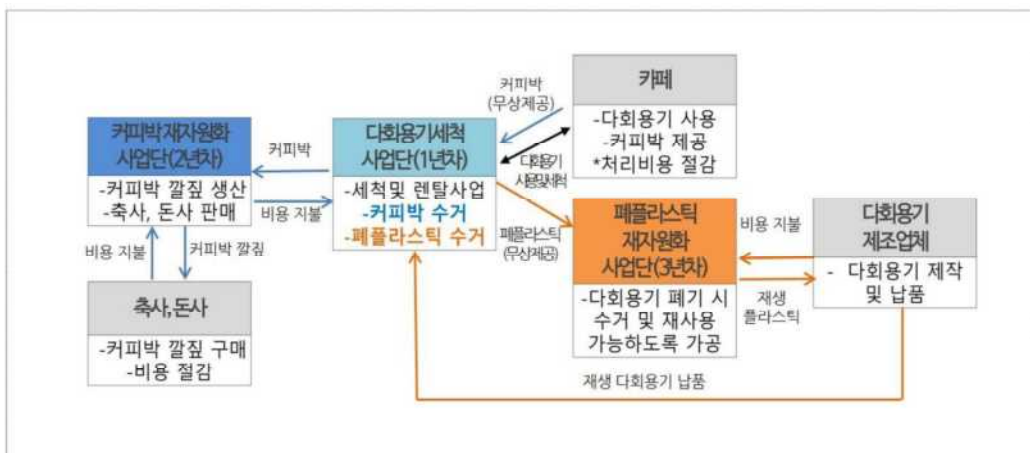
35

3 평가

“향후 3년(24~26) 로드맵 수립”

Key

- 다화용기 세척사업을 넘어 플라스틱,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
- 『자활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을 중장기 비전으로 수립



36

4 평가

“향후 3년(24~26) 로드맵 수립”

Key

- NFC 기반 반납이력, 재고, 탄소저감 웹·앱 관리시스템 구축 (Near Field Communication)
- 사회적성과 측정 고도화: 다회용기 세척량 뿐 아니라 물사용량, 전기 사용량 측정
* LCA(Life Cycle Assessment, 환경전과정평가) 연구용역 추진



37

K-SDGs

6. 마치며



“누군가에겐 흔한 일, 누군가에겐 생애 처음 있는 일”

“유니폼을 입고, 세척 공정을 배우는 일이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보람 있어요”



물방울이 모여 생기는 일
사람, 환경, 일자리를 지키는 일



물방울



식기



에코워싱

조각을 잃어버린 K-SDGs
‘자활’이 함께 찾아온 $1+12+13 = 26$ 이 아닌 ∞



“자활이 함께 이루겠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 + 편리함을 더하다
- 1회용품을 줄이다
- ÷ 마음을 나누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은 자활과 함께



2023 찾아가는
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



MEMO



MEMO



MEMO



MEMO

